

교육개발

특별기고

이리나 보노바 UNESCO 사무총장

파워인터뷰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

특별기획

2018년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추진방안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성공적 실행방안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

세계의 교육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

주요국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교육 사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세계 속의 한국교육

개성중중교육으로 신사를 키우는 영국, 한국문화가 싹트고 있다

이슈와 전망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

포커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의제와 한국의 역할'

정책과 현장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1년, 교육현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15
WINTER
Vol.42 No.4



‘KEDI 도서회원’이라면 귀하는 이미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입니다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의 연구성과와 사업활동의 폭넓은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19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와 정보자료들을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우리 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 4회)을 보내 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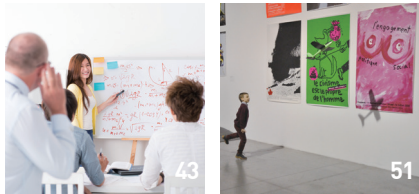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296-13-00262-4(외환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3460-0407

E-mail : book@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표지 | 사진 공모전 수상작
옥매선의 지리산 설목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 백순근

편집장 | 문성룡

홍보출판심의위원 | 윤종혁(위원장), 김미란, 김주아, 문성룡,
박경호, 박희진, 이성희, 임소현, 장명림,
정바울, 황준성

편집실 | 한지연, 백승균, 김태희

디자인·인쇄 | 세일포커스 02-2275-6894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발행 | 2015년 12월 18일

계간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등록번호 | 2013년 1월 23일

정가 | 6,500원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06 **특별기고**
이리나 보코바 UNESCO 사무총장

08 **파워인터뷰**
안드레아스 슈라이허 OECD 교육국장

21 **특별기획**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추진방안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
이정미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연구기획실 실장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성공적 실행방안
이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43 **세계의 교육**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
크리스 윤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주요국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교육 사례
신중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68 **세계 속의 한국교육**
개성준중교육으로 신사를 키우는 영국, 한국문화가 싹트고 있다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74 **이슈와 전망**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정책·평가센터 센터장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센터장

80 **포커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의제'와 한국의 역할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87 **정책과 현장**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1년, 교육현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93 **'한국교육정책연구' 최전선을 가다**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 제고' 로드맵, 우리가 만든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최정운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

99 **현장르포**
바른 인성과 즐거운 배움이 있는 행복학교 - 경기 남양주 별내초등학교
문일요 소년한국일보 기자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호흡하고 끼를 만나다 - 충북 제천 대제중학교
원선구 대제중학교 교사

작은 꿈을 큰 행복으로 키워 줄 자유학기제 - 충북 단양 매포중학교
이광희 매포중학교 교장

'세상의 빛이 되는 인재' ·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학교' 만들기
- 경기 파주 세경고등학교
이준화 세경고등학교 교장

무감동 시험에 학과중심 행정 도입...개혁드라이브 '시동' - 고려대학교
송보배 한국대학신문 기자

126 **교육통계 FOCUS**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황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송구영신의 계절...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1년을 잘 지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잘 지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지내려면 덕을 베풀어라. '학문으로 항상 베풀고, 덕으로 이웃을 만듭다' 구절 떠올라... 언제나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매력과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따뜻한 동료로, 이웃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야

어느덧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유난히 반짝이는 오색불빛들이 송구영신(送舊迎新)의 계절임을 일깨운다. 북반구에 속한 우리나라는 항상 추운 겨울에 송구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 묵은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이 더욱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 날씨가 추워져야 상록수의 푸르름이 더욱 돋보이듯이 이때쯤이 되면 역사 속 성현이나 영웅의 삶이 더욱 존경스럽고 부러워지곤 한다. 지나간 나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가올 나날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추운 계절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다.

첫 번째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學不厭教不倦)'는 구절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서로 배울 것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인격완성이나 잠재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학불염교불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는 한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에 나오는 '1년을 잘 지내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잘 지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지내려면 덕을 베풀어라(居之一歲, 種之以穀, 十歲, 樹之以木, 百歲, 來之以德)'는 구절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중기적으로는 커다란 결실을 맺기 위해 인내하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며, 서로 존중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 구절에서 보듯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핵심이 바로 덕을 베푸는 것이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때 그 핵심 또한 '덕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895년 고종의 교

육입국조서(教育立國詔書)에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며, 교육의 내용 중 '덕을 기르는 것(德養)'을 '몸을 기르는 것(體養)'과 '지식을 기르는 것(智養)'보다 더 중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언제나 덕을 기르고 베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는 당나라 시인 조영(祖詠)의 시에 나오는 '학문으로 항상 벗을 모으고, 덕으로 이웃을 만든다(以文常會友, 惟德自成隣)'는 구절이다. 이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개인적으로 언제나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따뜻한 동료로, 이웃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면서, 모든 만남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편안한 사이로 남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한 해를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나날들이지만, 그래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내는 묵은해는 늘 아쉽지만 다가오는 새해는 언제나 설렘과 함께 기다려진다. 이것은 이별은 늘 아쉽고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렘과 함께 기다려지는 이치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새해에는 묵은해보다 좀더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나날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쉬운 2015년 묵은해를 훌러보내고,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모든 직원들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사랑과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우선순위로서의 교육

이리나 보코바

UNESCO 사무총장

2015년 9월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정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웠다. 모든 목표와 세부 목표는 유엔 회원국과 파트너국, 시민사회와 청년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심층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4(SDG4)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전략은 빈곤을 청산하고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미래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평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명확한 기반을 기초로 하였다.

이는 마이 월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로, 교육이 Post-2015 의제 중 우선순위 분야로 꼽힌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2012년 필자의 주도로 출범하여 UNESCO에서 진행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의 기본이념이기도 하다. 이 계획은 접근성, 양질의 교육,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이고 상호 연계성 높은 과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유엔기구와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청년자문그룹과 글로벌 운동가들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핵심지원국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구 및 지원 활동 외에도 국가 수장들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강화하여 웰빙과 변화를 이끌어 냈다.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교육권의 부재가 개인과 사회에 있어 얼마나 큰 손실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으며, 이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공개실무그룹과의 협의와 새로운 교육의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린 한국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돋보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는 올바른 정책과 국제적 노력, 그리고 정치적 비전을 통해 갈등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를 창출하고 사회통합과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반기문 UN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120명의 각국 교육부 장관들과 1,600여 명이 넘는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기반의 혁신을 위한 노력과 고위층의 헌신이 한데 모여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비전은 새천년개발목표 2(MDG2)보다 더 넓은 시야와 심층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비전은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의 심화와 학습문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12년간의 무상공립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성공의 척도로서 포용성과 평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기본적인 독해 및 수학 능력이 아닌, 21세기에 필요한 팀워크, 창의력, 문제해결능력과 더불어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를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ICT와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제고함으로써 나이에 상관없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의제 설계에 있어 한국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한국은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APCEIU(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의 활동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의 증진을 이끌어 왔다. 또한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한 유엔개발재원총회와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총회 등에서 교육에 대한 재원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국가의 스킬과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베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습 및 학습에 ICT를 활용하고, 문화 및 창의력을 통한 사회 통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등의 전문성 증진의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행이다. 인천 포럼과 뉴욕 회의 이후, 우리는 이제 곧 개최될 유네스코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 총회에서는 약 180개국이 참여하여 '2030 행동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는 뚜렷한 목표와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을 증대시키고 진전과 격차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치적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에 비해 약 40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매우 큰 문제이다. 인천선언문은 GDP의 6%를 교육과 개발 원조에 할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교사 훈련,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와, 청소년기 여학생의 학교교육을 지속하도록 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연구 및 역량 개발과 평가 역시 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국가교육정책을 설계하고 글로벌교육정책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또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원으로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고 시민의식을 배양함으로써 공유가치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더욱 알리고 높여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드레아스 슬라이허

OECD 교육국장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높은 학업성취도보다 자기 효능감, 행복한 마음, 동기부여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직업에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며,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와 정치가들에게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조사는 각국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얼마만큼 학습자들의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는 교사와 교육 업종을 강화하고 21세기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더 나은 스킬을 통해 더 나은 직업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 기반의 학습과 교실 학습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OECD는 회원국들이 더 좋은 직업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며 번영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굴,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와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개혁의 핵심요인을 발굴하고, 국가별 교육 및 스킬 정책 개혁의 설계 및 시행 등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국장이 되신 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요즘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슐라이허 국장은 또,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도, 훌륭한 정보통신기술(CT)이 장점인 반면 입시 위주 교육, 낮은 흥미와 자신감, 청소년이 느끼는 낮은 주관적 행복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높은 학업성취도가 학생의 내적 동기와 자기 효능감,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자기 효능감과 자아개념, 동기부여가 향후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직 생성되지 않은 직업에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과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성공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들, 교사들과 정치가들에게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11월 5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비즈니스센터에서 교육부 등이 주최한 ‘2015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을 만나 OECD와 교육국의 주요 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 글로벌교육의 분석과 전망, 한국교육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 등에 관한 의견과 제안 등을 들었다.

백순근 원장 : 교육국장이 되신 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요즘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주된 관심사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국장 : OECD 교육국은 OECD 회원국이 더 좋은 직업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며 번영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정책 구현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 교육국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통해 각국이 실현 가능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동시에 교육선진국들의 성과를 토대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국장으로 재직 중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OECD와 교육국의 위상과 역할, 주요 활동내용,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감사하게도 OECD에 재직하는 동안, 국제교육비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OECD 교육국의 재직자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교육은 OECD 미션의 핵심분야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교육국 역시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육관료로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타인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OECD 교육부 장관들과의 첫 회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5년 파리에서 21명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서로 각국이 가장 훌륭한 학교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때 당시 국가 간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공유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국가 간의 진중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국제시험을 개발하여 각국의 학교교육 시스템의 성과를 비교하고 국가별 동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더 나아가 국제기구가 도맡을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28개국이 참여하였고, 오늘날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는 전 세계의 8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PISA 조사는 각국의 학교교육 시스템이 얼마만큼 학습자들의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는 교사와 교육 업종을 강화하고 21세기 학습자를 양성할 수 있는 21세기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적인 학습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더 나은 스킬을 통해 더 나은 직업과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교육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니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자신의 교습활동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TALIS와 더불어 효과적인 교습방법에 대한 비디오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혁신적 교습(TEI) 프로젝트는 교사의 교수적 지식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교수·학습국제조사(TALIS),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외에 영유아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반의 학습과 교실학습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반을 조사하고 새로운 지식을 교습에 반영하는 과정을 발굴하는 등 교사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원의 감소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구변동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국가들은 효율적이고 평등한 학습성과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OECD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효과적인 자원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을 위한 자원의 활용과, 분포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들 또한 고용가능성의 증진과 근로기반의 학습 및 훈련을 통한 고용 강화를 꾀하고

자 하며 이를 위한 OECD의 정책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OECD 국별 스킬 전략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반의 학습과 교실학습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 학습의 성과를 정확히 인지하고, 실업률 감소와 채용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기타 근로기반의 학습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개혁의 핵심요인을 발굴하고, 국가별 교육 및 스킬 정책 개혁의 설계 및 시행 등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ISA는 왜 시행하고 있으며,
PISA의 최근 주된 이슈와 현안은 무엇이고,
더불어 한국 학생들의 PISA 성적도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백순근 원장 : PISA는 왜 시행하고 있으며, PISA의 최근 주된 이슈와 현안은 무엇이고, 평가에서 성적이 좋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더불어 한국 학생들의 PISA 성적도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쉐라이허 국장 : PISA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0년도에는 지문 이해도 및 활용도로 일컬어지는 읽기·독해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지문의 기본적인 이해(글자 그대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상황적 요소를 이해하는 영역으로 그 정의를 넓혔습니다. 상황적 요소의 범위는 독자가 글을 읽는 환경에서부터 전달매체, 독자의 독해형식과 활용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2000년 이래, PISA 읽기·독해 능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읽기 형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 백과사전 등에서 찾아보는 정도에 그쳤으며, 습득한 정보가 옳고 그른지 여부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텍스트들은 학생들이 비선형 정보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얻은 정보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올바른 정보를 분별해 내고 습득한 정보를 심적으로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방대한 양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PISA 성취도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야만 합니다.

2003년, PISA의 초점은 수학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수학문제를 구성하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가 목적은 수학적 사고와 수학적 개념 및 과정, 사실과 도구를 활용하여 현상을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근거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함에 있어 수학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PISA는 총 7개의 기본 수학적 역량을 수립하였으며, 모든 역량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만이 높은 성취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006년에 PISA는 과학의 중요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과학 관련 문제와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PISA 과학 역량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높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은 (1)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2) 과학적 질문을 제기하고 제기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과학적 의문점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3) 데이터 분석 및 평가와 과학적 결론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및 기술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역량은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과 확산 정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과학적 탐구의 기본 특성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



인터넷 서핑을 통해 얻은 정보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올바른 정보를 분별해 내고 습득한 정보를 심적으로 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방대한 양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PISA 성취도를 얻기 위해 학생들은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야만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최근까지도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이를 절차적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량은 인식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보편적인 과학적 탐구를 위한 논



새롭게 바뀌는 PISA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리를 이해하고, 지식생성 과정과 이론, 가정 및 데이터 등 기본적인 용어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최근까지도 대부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창의적 활용과 적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는 낮은 성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내년부터는 PISA에서 각국 학생들의 웰빙 활동과 사회적 역량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PISA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술라이허 국장 : 새롭게 바뀌는 PISA는 기존 PISA의 주요

평가 분야인 독해, 수학 및 과학 능력 평가를 지속하는 동시에 더 넓은 범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능력 평가는 2015년도에 우선순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근로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은 사회생활에서 협력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능력의 기량과 태도를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거나, 시차 간격을 두고 일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기술을 통한 연결성이 높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같은 역량과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은 지식과 스킬, 그리고 노력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5년 PISA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핵심역량 평가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1) 상호 이해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2)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3) 팀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학생들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팀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같은 과정은 학생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찾아내고 알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룹구성을 모니터링하며, 소통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새로운 장애물을 마주하였을 때나 성과 최적화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역량 평가 보고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역량은 상호 의존적이고 다양한 사회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개별적 또는 협동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합니다. 이 평가는 다음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통 및 관계 관리 :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접근방식을 포용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의미합니다. (2) 국제 개발, 과제 및 동향에 대한 지식과 관심도 : 세계 문화와 주요 해결과제, 현상 등

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관심도와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접근방식과 상황에서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뜻합니다. (3) 개방성과 유연성 :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람들,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식과 실행여부 등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접근방식과 상황에서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새롭고 다른 접근방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역량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4) 정서적 의지와 회복력 : 다양한 접근방식과 경험에서 오는 변화와 모호성 등에 대응하는 메커니즘과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와 함께 PISA 참여국은 이러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스킬, 인성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3년 주기로 발표하는 PISA 결과는 국가들이 교과과정 기준과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하며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런 국가적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사회적 역량 및 학생들의 웰빙 등과 관련된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 Social Progress) 프로젝트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EDI에서도 ESP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ESP의 초기 결과는 어떠하며, 향후 ESP의 결과가 교육과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 공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ESP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중에 있지만, 우리의 지식기반에 있어 매우 큰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오늘날의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은 지식과 스킬, 그리고 노력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5년 PISA에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역량 평가 보고서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년 주기로 발표하는 PISA 결과는 국가들이 교과과정 기준과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하며 조정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특히, ESP 프로젝트는 사회적 및 정서적 스킬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좋은 직업과 건강한 삶의 방식, 시민성 증진과 안전한 사회, 삶의 만족도 제고, 인내심 및 회복력 등 청년층의 성공에 기여하는 사회적 및 정서적인 능력의 발달과, 아동의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 등의 능력 개발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도, 훌륭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장점인 반면 입시 위주 교육, 낮은 흥미와 자신감, 청소년이 느끼는 낮은 주관적 행복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순근 원장 : 최근 국제사회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TALIS는 기존의 학생중심의 OECD 교육지표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한 첫 시도로 알고 있는데, TALIS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TALIS가 2016년 Part 2 프로그램이 되면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교육시스템의 질은 학습의 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TALIS를 시행함으로써 오늘날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국이 높은 수준의 교사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TALIS는 교사들의 직무수행과 태도 및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4개국의 중등학교 교사와 학교장들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 TALIS 프로젝트에는 약 50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몇몇 국가의 경우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교사직업 개발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교습 및 실습에 대한 비디오투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OECD와 Education International, 그리고 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가들의 교육장관들, 노조위원장과 교사들이 모여 교습과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 내용의 대부분이 TALIS와 PISA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취도, 훌륭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장점인 반면 입시 위주 교육, 낮은 흥미와 자신감, 청소년이 느끼는 낮은 주관적 행복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네, 이는 사실 PISA 결과를 통해서도 찾

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높은 학업성취도가 학생의 내적 동기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효능감과 행복한 마음, 동기부여 등이 앞으로 학생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종종 놀라움을 마주하기도 하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수와 실패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학습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세대만 하더라도,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앞으로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직 생성되지도 않은 직업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과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 그리고 동기부여가 이러한 환경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얼마 전에 개최한 'KEDI 국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우수하지만 경제시스템이 인재의 능력을 성과로 나타내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을 받쳐줄 수 있는 한국의 경제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사실 그 내용은 국가역량전략 중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전까지의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학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효능감과 자아개념, 그리고 동기부여가 이러한 환경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이 집약적인 노동자원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까.

자들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근로연령 인구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근로소득(GDP) 성장률 역시 감소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욱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똑똑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업수준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의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더 나은 인재와 효과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높은 인센티브와 더불어 취업수준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높은 수준의 인재 역량과 역량들의 관련성 역시 직장

에서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생산력 증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의 경우, 교육을 취업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높은 고등교육 성취도와 높은 업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률은 결혼과 출산 이후 상당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업무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명예퇴직 시기가 빨라 자영업 또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로환경의 계약직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인재 고용과 공급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역량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증진과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12개의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즉 (1) 학업과 고등교육에 대한 과열화 현상 해소 (2) 창조경제를 위한 창업자정신의 함양과 인재 양성 (3) 평생학습 및 교육을 통한 성인의 역량 증진 (4) 여성들의 직업과 가정 간의 균형 노력 지원 (5) 청년층을 위한 학교-직업 연계성 증진 (6)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기술 양성 및 복지 증진 (7) 현재 및 미래 직업의 질 개선 (8) 능력의 가시화 및 효과적인 능력활용을 통한 각각의 능력 불균형 해소 (9) 효과적인 역량활용을 위해 필요한 역량 발굴 및 대응 (10) 정책의 통일성과 연계성 증진 (11) 인재역량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종합적 접근방식 강화 (12) 인재역량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개발도상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진국은 질 높은 교사 양성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통한 교육혁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육포럼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를 실현하지는 주장으로써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까. 한국정부에 대한 역할과 바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지난 수십 년간 국제경제를 통해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이를 외면하거나, 또는 단순히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경쟁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더 나은 능력들을 함양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적절한 능력들의 부재는 한국사회의 중심에 더 이상 인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의 발전 역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 리더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 사회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인간미를 증진하고, 상상력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정책입안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며, 회복력을 증대하고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시험의 80%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똑똑해지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이 배운 것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통해 추론해 내고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학교교육기간이 아닌,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학습결과를 기준으로 교육성고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바로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의 주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준 사례로써,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는 데 최적의 국가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한 가능성을 직접 보여 주었습니다. 2세대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수준의 삶의 질을 기록하는 국가였으며, 가장 낮은 교육성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평소 교육철학이나 교육관은 무엇이며,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포부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저에게 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들, 교사들과 정치가들에게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인간미를 증진하고, 상상력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정책입안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며, 회복력을 증대하고 실패를 딛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국장 : 199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설립 이래 유치중등교육, 고등교육은 물론 글로벌교육, 미래교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사업활동을 펼쳐 왔고,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전략적 리더십과 지성을 통해 괄목할 만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도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OECD와 함께 각국이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한국정부는 전략적 리더십과 지성을 통해 괄목할 만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으로도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OECD와 함께 각국이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



P R O F I L E

안드레아스 솔라이허

OECD 교육국장

1964년 독일 함부르크 출생.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해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호주 디킨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수학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9년부터 4년간 함부르크대 문해교육원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1993년부터 2년간 네덜란드교육연구원(SVO)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냈다. 1994년 OECD에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행정관으로 들어가 1997년 OECD 통계국 부국장을 지냈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OECD 교육국장으로 재직중이며, OECD 사무총장 교육정책 특별자문관, PISA 등 OECD 교육통계 및 분석 담당관 등을 겸임하고 있다. 1993년 'exemplary democratic engagement'로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Theodor Heuss'(테오도어 호이스)상을 받았으며, 1995년에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방안¹⁾



글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I. 들어가는 말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에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어 2014년에는 연구학교 80개교와 희망학교 731개교를 합해 총 811개교에서 운영되었고, 2015년 현재 전체 중학교

의 80%인 2,551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 적지 않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들에서 나타난 긍정적 반

1)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한국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2015년 9월호 뉴스레터에 실린 '현안쟁점' 원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응이 크게 작용하였다.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대해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평가방법, 체험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최상덕 외 2014a, 2014b, 2014c, 2014d, 2014e, 2014f; 최상덕 외, 2015a, 2015b, 2015c; 신철균 외, 2014).

그동안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 경험과 성과들을 토대로 2015년 8월 교육부는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 (이하 ‘시행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5). 시행계획(시안)은 실질적인 계획을 담고 있음에도 당시 예산확보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10월에 예산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다시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9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유학기제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명시되었다. 또한 10월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6년 자유학기제 예산지원 계획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모든 중학교에 현 희망학교 수준(학교 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법에 근거한 제도로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에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지지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확산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의 향후 전면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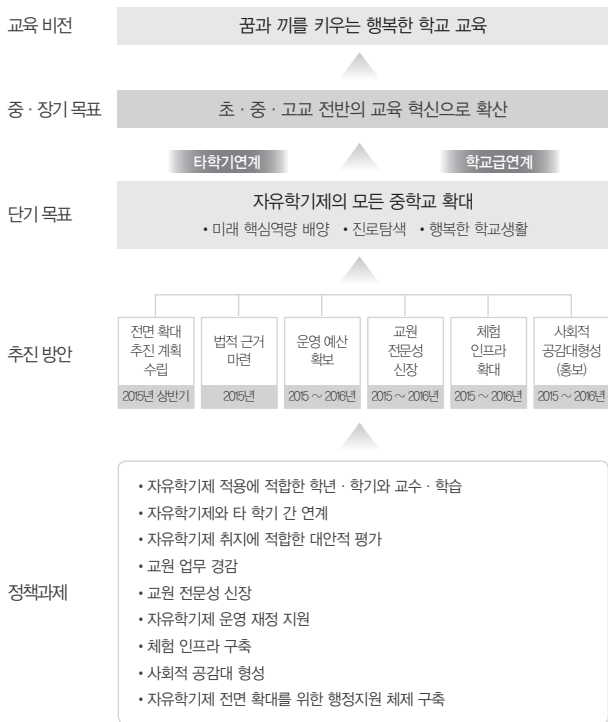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의 80%에 이르는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된 과정을 성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의 경험과 성과는 물론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들을 극복하고 성과를 낳게 한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의 추진방향과 추진동력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수행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이하 ‘전면 확대 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시범운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면 확대 방안 연구’는 1단계로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 심층 분석, 자유학기제 사례 연구결과 분석,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9대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2단계로 이 9대 주요 정

책 과제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전략 및 6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6대 추진방안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행계획(시안)'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의 비전과 추진목표 설정

'전면 확대 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비전, 추진목표, 추진방안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방안

출처: 최상덕 외, 2015d, p.332.

그림에서 보듯이, 전면 확대 추진전략은 자유학기제가 지향하

는 교육 비전, 2016년을 전후로 한 단기 및 중·장기 목표, 2016년 전면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 및 방안을 포함하였고, 추진방안은 추진 과제를 토대로 6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비전은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시범운영계획에서 제시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추진 목표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하고, 이후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 및 초·중·고 간 연계를 통한 '초·중·고 전반의 교육혁신으로 확산'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다.

2.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방안 제시

2016년 중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은 2단계로 거쳐 제안되었다. 먼저 1단계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요구된 과제 9가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9가지 정책 과제는 자유학기제 적용에 적합한 운영 학기 및 교수·학습 방법, 자유학기제와 타 학기 간 연계, 자유학기제 취지에 적합한 대안적 평가,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전문성 신장, 재정 지원, 체험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행정지원 체제 구축이다. 2단계는 이들 9가지 과제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즉, 전면 확대 추진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운영예산 확보, 교원 전문성 신장, 체험 인프라 확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6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들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정책적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추진방안과 과제

교육부가 8월에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이하 ‘시행계획(시안)’)은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방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험활동 자원 확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교육부, 2015). 이는 2013년에 발표한 ‘시범운영 계획’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험과 성과를 반영해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계획(시안)’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 추진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유학기제의 비전 및 운영 모형 재정립

교육부가 2013년 5월에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하 ‘시범운영계획’)은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대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임을 밝혔다(교육부, 2013). 이는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교육혁신의 방향을 ‘행복교육, 꿈·끼 탐색, 핵심역량 함양’으로 제시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이 꿈과 끼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자유학기제 개념을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교육부, 2013). 이는 유연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자유학기제의 운영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당시 진행된 여러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

상덕 외, 2013; 황규호 외, 2013; 광병선, 2013; 지은림 외, 2014).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은 오전에 ‘학생참여형 교과수업’을 하고, 오후에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의 두 축이 ‘수업 개선’과 ‘다양한 체험활동’임을 밝혔다. 체험활동은 진로체험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의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시행계획(시안)’은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초·중·고교 전반의 교육혁신을 위한 토대로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비전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가 목적으로 하는 ‘꿈·끼 교육 강화, 핵심역량 함양, 행복한 학교생활’을 달성함으로써 초·중·고교 전반의 교육혁신으로 확산해 나가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은 그동안의 연구와 운영학교의 경험을 반영해 ‘시범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운영 모형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과정 편성 학생 중심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방법 참여와 활동 중심	★ 평가 및 기재 과정 중심 평가
<p>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제고 교과과정 재구성 	<p>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p>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실시
<p>자유학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p>자유학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 능동적, 자기주도학습 경험 제공 	<p>자유학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 학생의 꿈·끼 관련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

[그림 2]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출처: 교육부, 2015

우선, ‘시범운영 계획’에 비해 운영 모형의 일부 개념이 수정되었다. 예를 들면, 오전의 공통과정은 ‘교과’로, 오후의 자율과정

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주제선택 활동’으로 바뀌었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체험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의 4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4가지 활동을 혼합해 구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유학기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며, 오후의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체험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운영된다. 다만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주당 10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연구학교들의 평균 ‘자유학기 활동’ 시간이 12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최상덕 외, 2015c).

2. 학교의 운영학기 선정 및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를 통한 확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유학기제 조항이 만들어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명시됨에 따라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시행계획(시안)’에 따라, 자유학기제 운영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하는 학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 구분 없이 1학년 2학기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교사 및 학부모는 1학년 2학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덕 외, 2014d). 따라서 선호하는 3학기 중 선택하도록 한 것은 학교의 선택의 폭을 가능한 한 넓히고 동시에 체험 인프라의 활용을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6개 시·도교육청이 1학년 2학기에 전면 확대를 시행한 상태이고, 2,551

개 운영학교 중 거의 98%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1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기의 분산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연구 결과, 1학기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립학교의 경우 학년 초에 교사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므로, 현 인사이동방식이 유지되는 한 운영학기의 분산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2학년 2학기나 3학년은 고입에 대한 부담과 내신 반영 문제로 인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낮아 선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자율적 학기 선택을 존중하고 체험 인프라의 활용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다양한 연계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행계획(시안)’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학기가 이전 및 이후 일반학과 연계가 이루어질 때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소위 ‘절벽효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유학기제의 장기목표인 초·중등 전반의 교육혁신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자유학기가 교육혁신의 ‘선도학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과 일반학기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15d). 따라서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는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교육 전반의 혁신으로 확산하는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명시됨에 따라 조만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따라서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교육기획력 제고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운영, 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교사들이 교단에 설 때 꿈꾸었던 ‘살아있는 교육’에 대한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밝은 표정과 능동적 참여를 경험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교사로서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었다(최상덕 외, 2014c). 이와 같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한 결과 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해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2014년 2학기 운영학교 교사들의 평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5로 학생들의 평균 만족도인 4.02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를 잘 나타내 준다(최상덕 외, 2015a). 교사의 자율성을 토대로 전문성이 신장되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제고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갑성 외, 2011). 교사의 자기효능감 제고가 교육기획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수업 개선과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교사운동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현장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분은 교사와 학교의 교육기획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정병오, 2014). 초기 연구학교 교사들의 이러한 역동적 변화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학교를 변화시키는 주축 세력이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다른 학교 교사들을 연수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능동적 혁신’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의 지지 속에서 확대될 수 있었다.

향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및 자유학기과 전·후 일반학기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교사의 열의와 전문성에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수록 자기효능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학생의 행복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의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기획력과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자율적 교사연구회 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위 교사연구회 운영이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문성 함양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의 특성상 교사들 간 협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및 학습생태계 형성

자유학기제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들로서는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와 준비만으로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체험처의 발굴 및 진로체험활동을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더구나 진로체험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자유학기제의 부실을 우려하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정부는 물론 학교의 부담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차원에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에 거의 총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체험처의 급속한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

어진 것은 물론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학습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가정, 학교, 사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학습을 매개로 역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망”을 학습생태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학습생태계가 형성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규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 협력해서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개선과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6월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을 의무화해 체험인프라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계획(시안)’에는 체험활동 인프라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 차원의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과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역, 학교 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온 결과 체험처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인프라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진로체험활동이 중간 및 기말 고사시기에 집중될 경우 체험처 확보가 매우 어려운 만큼 학기 내내 학교들의 체험활동이 분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별로 설치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체험처 확대는 물론 발굴된 체험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정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면 확대를 앞두고 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중요하게 제



기되는 이슈가 도·농 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 활용, 공공 및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 우선 배정, 진로체험 버스 등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이 요청된다.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된 만큼, 인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농어촌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15).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활동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읍·면 단위에 중학교가 1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진로 외에도 문화, 예술, 자연체험, 동아리, 봉사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처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예산 확보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면 확대 이후에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가 높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운영예산 확보 방안은 크게 국고 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교부금 또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지원, 안전문제로 인한 시설비 확보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운영 예산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기본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별교부금 방식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장기적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자유학기제 예산 연구 결과, 학급당 학생 수 35명, 6개 학급을 기준으로 주제선택 활동 및 1박 2일 진로체험, 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대략 학교당 2,500만 원이 지원되면 원활한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하며 최소한 학교당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최상덕 외, 2015d).

6.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자유학기제 확대의 중요한 또 다른 계기는 2014년 교육감선거 결과 많은 교육감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를 계속 추진한 것이다. 새로 선출된 시·도의 회 역시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자유학기제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별 다른 대립 없이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그 결과 2014년에 제주교육청이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였고, 2015년에는 제주를 포함해 대구, 광주, 강원, 경북, 세종 등 6개 시·도교육청이 정부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전면 확대를 시행할 수 있었다. 소위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선 이러한 협력과 지원은 자유학기제의 정책적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자유학기제의 확대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사 및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간의 역할 정립과 협력이 요청된다. 교육부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예산 지원, 교사의 역량 제고, 체험자원 확충 및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추진체계 구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과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일관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가 정착되고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청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도 필요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파트너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를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외, 2015e).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의 운영은 체험활동의 안전과 질을 제고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학습생태계 형성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IV. 맺음말

올해 안에 교육부가 발표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에 는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확보 방안이 추가되고 일부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학기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못지않게 운영예산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단기 목표로 하고 자유학과 일반학기의 연계 및 초·중·고 간 연계를 통해 ‘초·중·고 전반의 교육혁신으로 확산’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는 실행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한 학기의 변화를 넘어 초·중등 전반의 교육혁신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 공공의 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미래를 위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타이악&큐반, 2011: 242).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확대 및 정착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의 협력은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광병선(2013).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 158호.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시안).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김갑성 외(2011). 교원 및 교직원경 국제비교연구-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신철균 외(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병오(2014). 자유학기제 미래와 중학교 교육혁신의 과제.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 (2014.12.8)
- 지은림 외(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2015). 자유학기제 지원 협업체제의 구축 경과와 방향. 자유학기제 제8회 포럼자료집.
- 최상덕 외(2014a). 2013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b).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c).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학교별 사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d).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학교별 사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e).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f). 2014년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4g).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II).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a). 2014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만족도 조사결과.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b). 2014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학교별 사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c). 2014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d).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e).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운영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 황규호 외(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모델 연구. 교육부.
- 데이비드 타이악 & 래리 큐반(2011). 학교 없는 교육개혁: 유토피아를 꿈꾼 교육개혁 100년사. 렉스미디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추진계획



글

이정미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연구기획실 실장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대학입학자원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추진되었다. 2015년 8월 말

구조개혁 평가결과가 발표되었고, 이후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지정 등의 조치와 함께 대학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자체 구조개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이었다면, 대학 컨설팅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을 대학 스스로 찾고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2015년 11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컨설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대학 컨설팅의 개념 및 전략

전통적으로 컨설팅은 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문적 자문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 병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학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구자역·박승재, 2012). 최근 들어 컨설팅을 보는 관점은 의뢰인이 의뢰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적·전문적 문제해결과정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컨설팅도 의뢰인이 요청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의뢰인이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진단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문적 활동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구자역 외, 2013: 15).

이러한 대학 컨설팅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후 실시되는 대학 컨설팅의 전략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대학의 여건 및 특성,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발전방향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일방적인 자문이 아닌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과 컨설턴트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을 토대로 대학 구성원 간 공유되

고 합의된 과제 도출을 유도한다. 셋째, 대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학 운영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분석한다. 넷째, 대학의 운영 및 성과 제고 관련 전문적·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전문적 자문활동을 실시한다. 요컨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후 실시되는 대학 컨설팅은 대학의 자발적 참여 및 노력, 대학 구성원 간 공유되고 합의된 과제 도출, 대학운영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 도출, 전문적 자문활동 수행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 대학 컨설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대학 컨설팅의 목적 및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를 통해 대학의 현주소를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대학유형에 적합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수요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학 컨설팅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일반대 32개교, 전문대 34개교를 대상으로 크게 세 개의 분





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첫 번째 분야는 '학사구조 개편(정원감축 연계)'분야로서 대학 컨설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 지역사회 요구, 학생 요구 등과 같은 사회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감축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분야이다. 대학이 요청한 문제(컨설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대학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두 번째 컨설팅 분야는 '재정분야 개선'이다. 대학 구조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관건이 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보한 재정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와 관련된 분야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각 대학 재원의 적정성, 교육투자의 적정성, 재무 안정성, 재무 건전성, 법인 책무성 등에 관한 전문적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대학들은 재원 다각화 방안, 법인 책무성 강화 방안, 교육투자 확대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된다.

세 번째 컨설팅 분야는 '학생지원 및 교육체계 개선'이다. 이 분야는 구조개혁 평가 결과 드러난 평가지표별 대학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유도하는 분야이다.

Ⅲ. 대학 컨설팅의 운영 방법 및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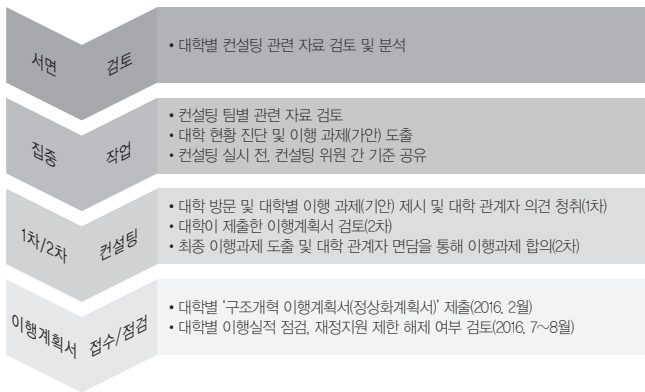
대학 컨설팅의 기간은 3년간(2015. 10 ~ 2018. 8)이며,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과제들에 대해 연차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대학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컨설팅 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D등급 대학은 학사구조, 교육운영시스템 등 미흡한 영역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E등급 대학은 대학 구조의 대폭적인 개편 및 기능 전환에 방점을 두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제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평가관리위원회, 컨설팅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컨설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를 담당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컨설팅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컨설팅단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 결과 및 대학의 여건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수행한다.

대학 컨설팅의 추진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5년 11월에 실시된 1차 컨설팅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활용된 대학체제의 투입, 과정, 산출 차원의 핵심지표들

을 토대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평가항목(영역)별·평가지표별 분석을 통해 각 대학의 우수요소 및 취약요소,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대학의 지속적 노력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단과 각 대학은 이행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1차 컨설팅 종료 후, 대학은 제공받은 컨설팅 내용을 고려하고 대학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이행과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2월 중순의 2차 컨설팅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이행과제 의견서를 검토하여 적절한 수행방안을 도출하고, 대학 관계자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행과제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2월까지 각 대학들은 대학별 구조개혁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년 7월 즈음 대학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림 1] 대학 컨설팅 추진 절차

IV. 향후 전망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된 2015년 한 해 동안 대학가는 적지 않은 내적 진통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학 컨설팅 과

정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충격과 내홍을 딛고 변화와 혁신을 향해 대학 구성원의 노력 및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구조개혁 평가 이후 대학 컨설팅을 통해 대학 체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진단을 토대로 대학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학 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대학 컨설팅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및 재정투자 확대, 교육운영체제 개선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과 교육부, 컨설팅 제공자 간의 긴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과정 속에 대학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참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각 대학의 질적 수준의 개선 노력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성공적인 대학 컨설팅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이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음을 대학, 정부, 그리고 컨설팅 지원 및 제공자들이 다 함께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구자영, 박승재(2012), 현장 중심 학교컨설팅의 개념·절차·기법, Position paper 제19권 제15호(통권 제164호), 한국교육개발원.
- 구자영, 박승재, 안병환, 이석열, 정택희(2013),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성공적 실행방안



글

이 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관

I. 미래 사회와 교육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든다고 한다. 즉 교육이 바로 미래의 희망인 셈이다.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교원, 교과서, 시설 등 각종 교육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흔히 교육을 위한 기본설계도에 빚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그만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세계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경쟁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은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이 가능한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엄청난 양의 지식이 쏟아지고 있고 그 많은 지식들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학습경험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진화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교육은 분명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수반하며, 특히 최근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달로 인해 미래 사회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더욱 어려운 시대이다. 이러한 때일 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Ⅱ. 우리 교육의 현실

1. 주요 국가 교육의 방향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새로운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 실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주지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프로젝트학습, 연계학습 등 학생 간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독일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직업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덴마크는 학생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서로 협동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핀란드는 국가 교육과정에 ‘배움의 즐거움’을 명시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확대 적용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로 미래 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2. 우리의 현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에 아직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지교과 중심의 지식교육, 과도한 반복학습, 경쟁적인 선행학습,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등급위주의 평가방식 등 배움의 즐거움보다 배워야 할 지식이 너무 많아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다.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흥미도와 행복지수는 높은 학업 성취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습량과 단편적 지식교육과 암기중심의 교육은 흔히 ‘넓게 많이 알게 하는 교육’(a mild wide and an inch deep education)으로 ‘진도 나가기’ 수업에 급급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유의미한 학습을 어렵게 하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교육도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 산업사회에서는 표준화되고 객관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미래에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창조기반사회가 도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에서도 이러한 사회를 주도할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Ⅲ.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 배경



교육부에서는 '많이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학교 현장에서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문·이과를 구분하는 관행과 수능과목 중심으로 지식을 편식하는 현상을 개선하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의미있는 학습경험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기 위해 교육정책의 근본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문·이과의 통합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밝히면서(2013년 10월) 시작되었다. '2013년 국가교육과정 포럼'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다수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이후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교육과정 총론에서 다루어질 주요 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어서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400여 명이 넘는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진에는 현장 교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현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 교과별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 현장적 합성 제고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개정의 기본방향

새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자주인·창의인·문화인·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현행 교육

과정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6가지 역량을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의융합 인재를 길러 내고자 한다. 창의융합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

핵심역량 요소	개념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 함양,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정책 전반(교과서, 대입제도, 교원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3. 국가·사회적 요구와 반영

한편 국가·사회·시대적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문학, 역사, 철학, 사회 등 관련 교과별로 인문요소를 강화하게 된다. 예술·체육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연극교육 및 예술 동아리의 활성화, 뮤지컬 등 활동중심 예술교육의 확대를 추진한다. 고교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를 신설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된다.

둘째,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해 과학수업에서 탐구실험, 연구윤리, 과학실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다루고, 고등학교에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과학 교과외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 편제를 구성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함양을 위해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셋째,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관련 교과에 안전교육 단원을 신설하게 된다. 현재 39개 주제가 나열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이 어려운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과수업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주제는 해당 교과에 직접 반영하여 학습하게 하고, 그 외 주제에 대해서는 10개¹⁾로 범주화하여 단위학교 차



원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4.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

학교급별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총 64시간) 증배하며 확보된 시간은 체험중심의 '안전한 생활'(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한다. 중학교는 201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모든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선택교과에 편성되어 있던 '정보' 과목을 소프트웨어 내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편성함으로써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배워야 할 필수내용 중심으로 '공통 과목'을 구성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하되 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하게 된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로 하고, 사회/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개발하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교과 학습 주제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여 분과 학문적인 개념을 넘어 사회현상, 과학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구성한다. 한편,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편성한다. 또한 기초교과의 이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게 하되, 기초교과에 한국사(6단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국가 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하여 새로운 과정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는 2016년부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또한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취지를 각 교과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과 간 내용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제시하여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였다. 각 교과는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중심의 수업 운영을 위해 교과별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핵심역량의 함양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임을 총론에 명시하고, 아울러 교과 공통의 핵심역량과 교과별 고유의 역량을 추출하여 총론과 각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IV. 새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

이제 본격적으로 새 교육과정의 후속지원을 위한 고민과 연구를 진행할 때이다.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원연수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경우 단순한 전달연수 차원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별 역량을 바탕으로 어떠한 내용이 새롭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교수·학습 자료를 작성해 보는 등의 참여형 연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새로운 교과와 그 내용의 변화에 맞게 교원양성기관(교대, 사대)의 교육과정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상과목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새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에 맞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만들어 주는 틀이 되어야 하며, 개인이 꿈을 이루고 희망의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성과 희망에 맞는 꿈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며,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에서 해야 할 핵심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교육 키워드인 ‘행복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육적 함의를 담고 있다. 즉 교육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고,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



글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

I. 서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이 아직은 ‘구조개혁 평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발전 방향과 지역균형 발전 등

보다 거시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대학, 언론, 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담아낼 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때마침 지난 10월 발의된 국회 안홍준 의원의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쟁점



사항을 고려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담긴 주요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향후 모색해야 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방향

1. 고등교육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제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학 하나, 하나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가 건강할 모습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현황에 대한 진단이 중요하다. 학령인구 추이, 대학의 입학정원 규모, 인력수급 전망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 간 역할·기능과 정원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별 발전전략과의 연계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아울러 평생·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과 정부의 행·재정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안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부처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학교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대학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전문기관 등 관계자의 의견,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와 소통

고등교육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원감축 부담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별 여건·특성에 따른 대학-기업-지자체 등의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인 균형 발전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안에서는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및 지역 균형발전을 법 제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 간 정원감축의 합리적 부담을 위해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대학의 기능전환 및 자발적 퇴출 등 관련 사항을 대학교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사항을 연계하

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자체계획 수립에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등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학·연 협력 촉진, 평생학습의 장 제공 및 평생교육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질적 구조개혁의 개념에 포섭되도록 한 것이다.

3. 대학의 자율적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또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력양성 체계의 변화를 위한 학사조직·행정조직 등 개편, 평생교육·직업교육·외국인 유학생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기능전환,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기능의 조정·강화, 경영 효율화, 정원 감축·조정 등의 사항을 구조개혁 자체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에 나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조개혁 자체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자율적 학사구조 개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행·재정적 지원 시,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대학의 여건 및 특성, 재정지원 사업의 고유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4. 정원감축 부담 최소화

학령인구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고등교육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향후 약 16만 명의 감소분을 3주기에 걸쳐 4만 명(2014~2016년), 5만 명(2017~2019년), 7만 명(2020~2022년)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정원감축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안에서는 평가를 통한 차등적 정원감축 외에도 학생 유치에 위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에 대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법인, 평생교육법인 등으로 기능 전환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퇴출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이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여건, 교육의 질을 갖춘 대학이 많은 정원을 유지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Ⅲ. 향후 추진 과제

1. 고등교육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사회 스스로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우리나라 대학이 갖춰 나가야 할 모습과 경쟁력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모색해 나가는 등 대학사회의 자율적인 노력과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2.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학의 발전을 논의하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산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계의 중심축으로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청과 대학 간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하여 대학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고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각 지역별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회성,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도적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근거 법률의 조속한 제정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대학의 2주기 평가 준비에 차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율적 감축에 나선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형평성 논란과 자율감축 철회 등 혼란을 가져오고 수도권-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의 완화에 실패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대학 재정의 부실화 및 교육여건 악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며, 교직원 또한 학생 유치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어 교육·연구 등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교육의 질과 관계없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 동안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된 안이 발의되는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회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론

대학 구조개혁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당장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10년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학령인구 40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구조개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대학규제 혁신 등 관련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주기 구조개혁 평가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적인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이 이번 구조개혁을 계기로 한층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ㄷ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



글

크리스 윤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정부는 2015년 8월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교육개혁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교육부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행복과 창의인재 양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① 꿈과 끼를 키우며, 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③ 능력중

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우리 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입시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우리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과



제의 성공적 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개 분야의 교육개혁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만한 해외 주요 4개국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I. 미국의 코딩교육

2014년 가을학기부터 진행된 미국 교육개혁인 공통핵심학력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과 함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의 언어라는 코딩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글로벌 커리큘럼 개혁의 하나로 일부 IT 국가에서는 이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코딩을 배우는 커리큘럼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코딩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IT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코딩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만큼,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 그리고 팀워크까지 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분야라는 견해이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평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필요한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게임을 만들거나 캐릭터를 움직이는 작업은 이같은 문제해결이 요구하는 사고능력과 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을 수반함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처럼 복잡한 프로그램 언어나 알고리즘을 몰라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으로써 쉽고 체계적으로 코딩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교육지원단체인 ‘Code.org’에서 발표한 컴퓨터 관련 직업에 대한 전망은 미래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 관련 인물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은 약 140만 개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인 40만 명보다 훨씬 많아지며, 또한 이를 통해 약 5,000억 달러(5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기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관련 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사회요구에 참여하는 조속한 범 글로벌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컴퓨터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기본 교육과정부터 대학 과정까지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기에 국가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빌 게이츠 그리고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 등 IT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비영리단체인 ‘Code.org’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동원되어 전 세계적으로 코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친근한 게임 등을 이용해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코딩수업을 포함 하지는 ‘Hour of Code’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은 단순히 앱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사용자들 역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로그래밍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인 코딩교육 추세에 따라 미국은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많은 기관에서 어린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단체의 코딩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라이프롱 킨더가튼(Lifelong Kindergarten) 회사의 프로그램인 스크래치이다. 이것은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스크래치 교육 앱을 사용하여 동작, 소리, 형태, 연산 등의 8개 분야를 제어할 수 있는 100여 개의 블록을 조합하여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코딩과정은 쉽고 재미있게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익힐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또한 뉴욕에 있는 일부 기술학교들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코딩 관련 대학교육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M과 산학협력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프로그램들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뉴욕시립대의 컴퓨터공학 학사에 준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학교에서 코딩교육을 확산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학생들은 진학과 취업을 위한 코딩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II. 강한 독일교육: 적성과 직업교육

독일은 프리벨이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세웠으며,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발도르프 교육이 탄생한 교육의 나라이다. 현재 독일

식 교육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독일에서 제조된 교구와 장난감 등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독일의 교육제도는 최근 들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초·중·고에서는 특별한 개혁의 변화는 없다. 대신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진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수한 인력의 조기발견’과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인력의 확보’에 기초를 둔 독일교육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은 제조업과 공업화, 그리고 마이스터로 대변되는 기술적 장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국가이며, 교육을 통한 장인정신으로 기계공업의 최우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교육의 핵심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차별이 없는 행복한 인재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 독일 고등학생의 직업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2000년부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약 30%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02, 2005, 2008).

독일교육의 핵심은 중등교육에서 시작된다. 초등교육은 4년제로 만 6세부터 시작되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세 중





류의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학업수준이 비교적 낮은 기술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일반 실업계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 그리고 대학입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Gymnasium)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학교로의 진학은 학생의 성적과 능력에 따라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은 수평적 개념의 교과과정으로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에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과정을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다.

1.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5학년부터 9학년까지 5년제로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교이며, 졸업 후 직업생활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교육한다. 5~6학년은 관찰단계로써 이후 학생의 진로가 확정되므로 6학년 말에는 다른 형태의 중등학교로 진학이 가능하나 그 수요는 극히 적은 편이다. 9학년이나 10학년을 마치면 대부분 직업 훈련과정에 들어가서 18세까지 직업교육을 받으며 이후에는 직업전선으로 진출하게 된다. 하우프트슐레 과정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면 하우프트슐레abschluss(Hauptschulabschluss)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특정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다 받았

다는 의미이다.

2. 레알슐레(Realschule)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6년제 학교로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반교육과 함께 직업교육도 강조한다. 5~6학년의 관찰기간 후에 다른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직업훈련 전문학교와 같은 기술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준비를 위한 학교로의 진학자격이 부여된다. 레알슐레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미틀러레라이페(Mittlere Reife)라는 학력증서가 수여되며 이는 사무직이나 행정직(은행원, 경찰, 공무원, 비서, 이공계 기능직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증서이다. 하지만 요즘 독일은 대학진학 학교인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많아졌는데,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업을 가진다는 의식이 높아진 이유이다(OECD, 2009). 그래도 직업에 대한 차별과 연봉 차이가 크지 않아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

3. 김나지움(Gymnasium)

5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9년제의 독일의 전통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준비시킨다. 5~10학년은 중등 1단계, 11~13학년은 중등 2단계로 구분되며, 김나지움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아비투어(Abitur)라는 학력증서를 받고 이 증서가 있는 사람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아비투어를 받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

4. 독일교육의 특징

1. 독일교육의 시작은 경제교육에서 시작된다. 근면하고 절약하는 국민으로 잘 알려진 독일인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독일 부모들은 어렵게 번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절약정신이 몸에 배도록 올바른 경제교육을 가르친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껴 쓰며 절약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환경과 재활용품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시설도 발달하였다.

2.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절대 하지 않으며,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과 개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교육의 본질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3. 중등교육부터 직업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주고 있다. 독일경제가 다른 유럽국가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는 것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현장에서 전문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협업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학협동을 자랑하는 독일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본인의 흥미와 재능에 기반한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취향, 관심, 학습동기, 삶의 목표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박성희, 2014)

4. 생산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대학공부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직업교육을 통해 직장을 잘 잡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비중을 둔다. 하지만 최근 독일도 대학 진학율이 떨어져 21세기에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글로벌 경



쟁력에서 도태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박성숙, 2010).

Ⅲ. 이스라엘: 토론교육의 결정판인 하브루타(Havruta)

이스라엘은 세계인구의 약 0.25%이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와 아이비리그 진학률 30%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민족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교육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이들 교육의 비결은 가정과 학교에서 성경과 탈무드의 내용을 토론하는 단순하지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전성수, 2012).

유대인들은 교육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운다는 전통이 있다. 이들은 토라(Torah: 히브리어로 ‘가르침’ 혹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가지 책으로 모세오경이라고도 한다)를 공부할 때 전통적으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며 서로에게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함께 해답을 찾아간다. 이러한 방법이 하브루타(Havruta)이며,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함께 배운다는 뜻이다. 하브루타는 아랍어로 두 사람 간의 친구, 우정, 파트너 등의 뜻이 있으며, 이 학습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내용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종종 논쟁이



나 격한 토론으로 발전되기도 한다(Kent, 2010).

또한 안식일 식탁에서 가족들 사이에 나누는 하브루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과 자기의 생각을 나누며, 대화를 통해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운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예시바(Yeshiva)라 불리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유대교 경전인 토라(Torah)와 탈무드(Talmud)를 가르친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예시바교육을 거치며 칸막이가 없는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두 명 이상이 열정적인 토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적인 대화 뿐이 아닌 인간관계와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유대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전성수, 2012).

유대인은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대답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문제해결에 도전한다. 그들에게 공부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을 가치 있는 교육으로 생각한다. 책은 토론을 위한 매개이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배우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전시키고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고의 학습방법은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이다. 남이 전해준 정보는 쉽게 들어온 만큼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 논리력, 사고력, 분석력, 추리력,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1. 하브루타의 특징

1. 유대인은 교육을 단순한 지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잠언 1:9)라는 성경말씀은 교육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을 생활과 그들의 영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2.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가 생각의 힘을 얻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유도한다. 상대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비판적 토론과정을 통해 결과를 스스로 도출해냄으로써 개인의 논리력, 사고력을 키우게 된다.

3.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하브루타의 목표이다. 유대교 교사들인 랍비는 주제를 제시하고 조언을 줄 뿐, 토론에 끼어들거나 결론을 맺어주지 않는다. 예시바에서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과정을 익히며, 그러한 사고방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예시바의 교육철학이다.

IV. 싱가포르의 21세기를 위한 교육비전

최근 10여 년간 싱가포르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비전은 여러 나라의 연구대상이 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교육시스템의 패러독스와 싱가포르 수학으로 대표되는 개념적, 추상적 교육은 외우는 교육에서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싱가포르는 강한 중앙통제, 시험을 통한 학습동기, 치열한 경쟁 등 전통적 아시아의 교육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강한 통제의 사회적 제도 안에서도 교사와 학교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 주도학습으로 교육의 특성을 바꾸었다. 또한 경쟁을 하지만 협력을 가르치며 교육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실용주의 교육철학은 싱가포르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Hargreaves & Shirley(2009)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학업성취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설적(paradox) 상황을 유연성 있게 다루는 능력과 지혜에 있다고 보고 있다.

1. 통제의 역설: 중앙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교사와 학교에게 의사결정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1997년에 제정된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Thinking School, Learning Nation)라는 국가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기본으로 사고력 개발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것은 곧 21세기의 글로벌 경쟁력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방법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자율성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책결정자, 연구자들에 비해 교사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학교와 교사들에게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였다. 대신 정부에서는 질 높은 교사와 교원 지도자를 양성하고, 학교 인프라를 조성하며, 학교운영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을 하였다(Ng, 2008).

2. 교육의 역설: 2005년도에 소개된 '덜 가르치고 많이 배우



는'(Teach Less, Learn More)의 목표는 커리큘럼 자체보다는 교육방법에 초점을 두는 시도였다. 이는 교육의 방향과 방법이 가르치는 것에서 자율학습으로 바뀌는 동기가 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커리큘럼 내용의 일부를 줄이는 시도였으며, 특히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 비평적으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부를 이룬 중심으로부터 적용과 사회참여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내적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는 지난 20년간 추진했던 확실한 교육비전을 통한 교육시스템의 발전과 혁신의 노력으로 오늘의 교육수준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V.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위 네 나라의 교육개혁과 목표설정에 대한 노력을 보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한국교육의 중심은 몇 십 년 동안 지식을 배우고, 외우고, 시험 보는 교육이다. 배우고



익힌 것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와 사회정의의 책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후원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교육적 비전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만의 정체성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교육 정체성이란 ①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교육, ③ 다민족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세계화, 글로벌이라는 막연한 정체성으로 스펙 쌓기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의미 없는 무한경쟁의 방향으로 사회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대한민국 교육은 아직도 교사 주도이며, 시험을 위해 교과서 진도를 따라야 하는 학습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직접적 가르침의 시간을 줄이고 학습자가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을 주도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좀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의 교사들에게는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교육절차의 대부분이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같은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도 교사의 자율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이번 교육개혁도 현재의 입시제도나 학교문화와 공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하여 역량개발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적인 지식전달식 수업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떻게 작동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찬승, 2015).

정부의 교육개혁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커리큘럼도 개발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교육비전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개혁에 따른 수업지도를 해야 하는 교사들의 관심과 전문성교육이 함께 준비되어야만 하겠다. ✎

[참고문헌]

- code.org
- OECD(2002, 2005,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 OECD(2009). OECD Factbook
- www.youtube.com/watch?v=6XvmhEUGPY
- www.scratchjr.org
- Hargreaves, A., & Shirley, D. (2009). The fourth way: The inspiring future for educational change, Thousand Oaks, CA: Corwin.
- Kent, O.(2010).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6(3), 215–245)
- Ng, P.(2008). Educational reform in Singapore: From quantity to quality.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7(1), 5–15
- Building Blocks for Education Singapore Summary
- www.edu.gov.on.ca/bb4e/Executive_Summaries_EN.pdf
- Paving the Fourth Way: The Singapore Story
- www.nie.edu.sg/files/oe/Paving%20the%20Fourth%20Way%20PDF.pdf
- 박성숙(2010). 독일 교육 이야기, 21세기북스
- 박성희(2014). 독일 교육, 왜 강한가?, 살림터
- 유태인교육법http://parentsguide.tistory.com/entry/%EC%9C%A0%ED%83%9C%EC%9D%B8%EA%B5%90%EC%9C%A1%EB%B2%95%EA%B0%80%EC%A0%95%EA%B5%90%EC%9C%A1%ED%83%88%EB%AC%B4%EB%93%9C
- 이찬승(2015). 싱가포르의 교육혁신이 주는 시사점. The Huffington Post Korea. www.huffingtonpost.kr/Gyobasa/story_b_8144166.html
- 전성수(2012).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예담프렌드
- 전성수(2012). 자녀교육혁명 하브루타, 두란노
- 성경(잠언 19)
- 『제4의 길(The Fourth Way), (2015), 21세기교육연구소
- 『글로벌 제4의 길(The Global Fourth Way), (2015), 21세기교육연구소

주요국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성교육 사례



글

신중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시작하며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것인가?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결국 창의성 교육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하게 서로 공

유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창의적인 '생산'과 효과적인 '공유'는 창의적 인재의 핵심특성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창의성 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이 '생산'과 '공유' 활동을 내포하는 대표적 영역이라



는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창의성 계발의 중요한 교육의 한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이 제공하는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독특한 경험이 다른 분야로 전이되어 창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최근 창의성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학교에 도입되고 있으며, 창의성 교육의 큰 흐름이 되고 있는 융합인재 교육(STEAM)에서 예술(Art)은 과학, 공학, 수학 분야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핵심활동으로 중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측면이 구체적으로 창의성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경험이 타 분야 창의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유발되는 미적 체험이 심도 있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창의성 발현을 위한 심리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창의성은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때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예술작품은 특정 대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재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가 창의적 예술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심도 깊게 인식하고(Tatarkiewicz, 1986), 자신의 잠재성을 발휘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Arnhem, 1984).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의 독특한 문제해결방식은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제의 발견, 해결책 제시, 결과의 공유와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은 창의성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Treffinger, Isaksen, Dorval, 2000), 문화예술 경험은 이러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빈치, 아인슈타인, 스트라빈스키, 피카소, 뒤샹, 울프, 파인먼과 같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성을 발휘한 인물들은 예술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고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1999). 예술가들의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연습한다면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수월한 전략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문화예술 경험은 다른 분야의 언어나 표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다. 예술영역에서 새로운 표현방식은 자체가 창의적이라고 평가받는다. 표현방식에 대한 고민과 연습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 경험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면, 창의성 발현과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 교육이 창의성 교육에서 갖는 다양한 가능성들은 실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교육운영의 주체나 방식에 따라 예술교육 전문기관, 박물관·미술관, 혹은 학교가 주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사례들이 있다. 본 글에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문화예술 교육 사례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주요국의 문화예술교육 사례

1.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첫 번째 사례는 예술교육 전문기관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유형이다. 문화예술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통해 교육 환경 및 내용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이다. 따라서 전문 예술가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특징을 갖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 Center)가 있다(곽덕주, 남인후, 임미혜, 2015). 높은 교육수준과 평생교육으로 많은 나라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핀란드의 예술교육은 '타이카람푸'(Taikalamppu)라는 지역예술센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아난탈로 아트센터는 11개 아트센터로 구성된 이 네트워크의 한 기관으로, 1987년에 개관하여 헬싱키 시 문화국 소속의 시립 문화시설로 운영 중이다.

예술교육 전문기관이지만 센터의 목적은 전문 예술가의 양성이다. 단지 예술가와 같은 환경에서 예술가 수준의 예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의 정신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센터는 3층짜리 낡은 폐교 건물을 인수하여 시작되었는데, 1,200평 규모의 공간은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장르별로 특화된 실기 스튜디오, 전시장, 강당 등을 보유하고 있고, 순수미술, 응용미술, 연극 등이 모두 가능한 설비에 기자재나 교보재의 수준은 예술대학의 실기실과 흡사할 정도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예술가 양성을 위한 이론과 실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예술창작활동의 진지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일상적인 공간과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센터가 지향하는 문화예술 경험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진지하게 예술창작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악기, 기자재, 교보재가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많은 활동과 복잡한 프로그램은 자발적 사고와 참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한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경험을 통해 실패 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한다.

아난탈로는 예술수업과 전시·이벤트라는 두 가지 유형의 프





로그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술수업은 학교연계형과 자유수강형으로 나뉘며, 센터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5×2 프로그램'은 학교연계형 예술수업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2시간씩 5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으로, 처음에는 아동대상의 수영수업에서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매주 2시간씩 5주간 “생존을 위해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문화예술을 배우는 것”을 표방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문 예술가 및 예술 교육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접하고 창작경험을 한다. 현재 헬싱키 시의 모든 초등학생은 6년의 학교생활 중 반드시 한 번 이상 '5×2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시 교육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자유수강형 프로그램은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수업(cultural courses)이 있다.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는 열려 있으나 유료이다. 4~6주간 30시간 진행되는데,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술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 사랑, 전쟁,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는 무엇이든 헬싱키 시내의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주제에 따라서 관련 강의, 전시, 영화, 책, 작가와의 만남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술창작활동 이외에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병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셈이다.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분야 간 융합과 그 결과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창의적 경험이 발생한다. 연간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예술교육은 예술교사(art teacher)라고 불리는 현직 예술가들이 담당한다. 50여 명의 예술가는 프리랜서방식으로 시간과 과정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육자와 예술가로서의 창작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에게 교사로서 별도의 교육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교사 자격은 예술 전문성이 먼저 확보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자칫 교사가 교육의 중심에 섰을 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창작활동이 등한시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교육은 예술가처럼 진지하게 몰입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은 다른 분야에서 도전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재료가 될 것이다.

2. 미술관을 통한 교육: 영국 테이트 모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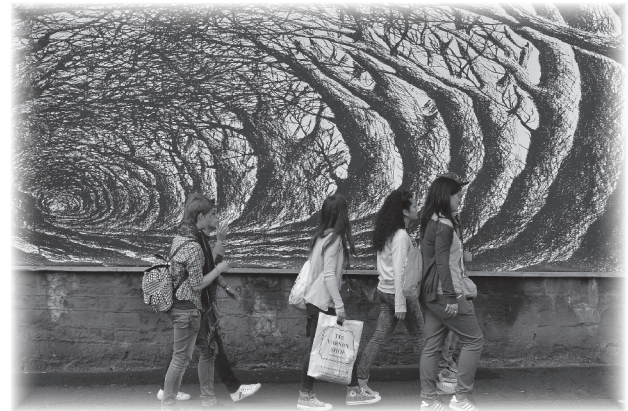
두 번째 사례는 미술관을 통해 제공되는 문화예술 교육이다.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것 이상이다. 미술관에서 학생들은 작품의 선, 색, 형태, 리듬감, 빛의 변화와 차이와 같은 형식적 질(formal quality)에 대한

체험을 하고 순수하게 미학적, 자율적,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보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술관의 문화예술 교육은 해당 작품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경험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김형숙, 2001).

국가 차원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미술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영국의 사례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창의성 계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2002년 'Creative Partnership'(CP)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문화를 접목시켜 창의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낸다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면서, 5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가들과 지속적인 공동작업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강조해 왔다(이은적, 2013).

런던에 위치한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모던(Tate Modern) 역시 문화예술이 창의성 교육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 테이트 모던을 비롯한 미술관의 주목적은 예술작품이 대중에게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관은 학교와는 차별화된 예술 교육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확장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기획하고 있다. 특히, 지역 예술가와 학교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수월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테이트 모던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업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술가와 상호작용이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은퇴한 교사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안정적인 운영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평소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1일 이내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매일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감상, 창작 프로그램이 열리며, 개인 혹은 학교 차원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중에는 미술관의 전시작품에 대해 개방형의 질문들이 주어지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을 한다.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창작, 감상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창의적인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진다.

이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의 예로, 2015년 현재 운영 중인 '테이트 모던 학교 워크숍 프로그램'(Tate Modern Schools Workshop Programme: with 2015/16 Artists-in-Residence, Spring 2016)은 현업 예술가와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사고하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시간 동안 최대 16명이 수업에 참여하며 주요 활동의 진행은 현업 예술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예술작품은 예술가, 교사 혹은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는 매개체이다. 작품은 예술



과 현대문화를 이해하는 학습의 맥락이 되며, 서로 질문을 하거나 각자의 의견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활용된다. 예술적 관점으로 토론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결국 이러한 예술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험을 하며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게 된다.

장기간의 프로젝트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는 지역 내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운영구조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물론 미술관에게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2009년에 운영되었던 'Looking for Change'라는 프로그램은 학교 연계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는 런던의 3개 초등학교와 3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로 현업 예술가와 미술대학 교수진이 기획하여 8주 간 운영되었다. 1주차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도록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2주차에는 자신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미술관을 방문하여

감상 경험을 갖는다. 3~6주차는 학교에서 예술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7주차에 다시 미술관을 방문하여 그룹 토론을 하면서 심도 있는 감상 경험을 하였다. 8주차에는 각자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예술경험을 통한 다양한 변화를 성찰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예술적인 기법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경험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전체 프로그램 과정에서 학생들은 미술관의 작품이나 자신의 작품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신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즉,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테이트 모던의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인가를 알게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창의성으로 발현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3. 학교 주도의 교육: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

세 번째 유형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면서 타 분야의 창의성 계발을 실천하는 경우이다. 앞의 두 사례가 전문기관이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과 비교하여, 학교 주도의 문화예술 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예술 이외 분야의 창의성 계발을 염두에 두는 사례는 특히 과학영재 대상의 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인디애나 과학수



학인문학교등학교, 미국 일리노이 수학과학교등학교,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 등은 과학영재들에게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도록 하여 과학적 지식만으로 불가능한 새로운 가치창출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교육열은 이미 유명하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남다른데, 그 결과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 1명,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배출한 바 있다. 이스라엘 유일의 영재고등학교인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수학, 과학 교육에서 지향하는 미래인재 교육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학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유대인 석학 18명이 주축하여 1990년 설립되었다. 5년여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다양한 문화, 다양한 학문이 균형적으로 융합된 'Total Learning Community'를 모토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학교는 재능은 물론 학업동기가 뛰어난 인재를 까다롭게 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70~80명이 입학한다. 전공은 과학(science), 음악(music), 미술(art), 인문학(humanities)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학 전공자가 50%, 음악과 시각예술 전공자가 30%, 인문학 전공자가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수업료 수준은 연간 6,000달러 정도로 보통 학교보다 2~3배 비싼 편이지만, 전체 학생의 90% 가량이 장학금을 받는다(정현철 외, 2012). 따라서 200여 명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미래 국가 인재로 이들이 성장해 가도록 돕는 영재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A Passion for Excess

While all of the campers were given opportunities to "taste" a bit of science, art, and music, each also selected one area of focus in which they spent the majority of their morning time. These included:

- ◊ **Science:** Campers in the science track explored the following topics:
 - **Gen Chemistry:** a popular choice. This field allowed campers to get hands on and explore the geological phenomena taking place in the ancient, multi-layered rock face, right here on USA's Scholastic Campus.
 - **Astrotopics:** Campers had the opportunity to observe the night-time skies and to examine such questions such as: "What are the stars made of?"
 - **Energy:** A new choice this year which allowed students to explore a science relevant to our daily lives.

◊ **Music:** Music studies are divided into two main areas: investigating music theory and creative music composition. Campers also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exploring different instruments including flutes, guitars, pianos, clarinets, violins, xylophones, cellos and more, and the sound of musical creation could be heard both day and night throughout the duration of camp. The music track allowed for plenty of time for students to explore new instruments as well as to practice on old favorites. Additional music track offerings included an intensive "listening" class as well as a music history class which covered the different musical traditions in various historical periods.



Musical creativity in the music track

◊ **Art:** campers in the art track selected from two primary concentrations:

Sculpture: Students learn to work with cement blocks and also to create imaginative castings of their own faces in plaster and clay.

Drawing: Students explore many different mediums including ink, oil, and colored inks. They also explored the topic of perspective.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의 특징은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지적, 인성적 측면에서 수월성을 함께 신장시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류교육'을 지향하므로, 각 전공에 대한 심화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간학문적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 예술, 인문학 간의 상호 보완적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과학 전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예술, 인문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예술 전공자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수학, 과학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한다. 과학 전공자들에게 요구하는 예술수업의 수준이 단순한 감상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학제간 연계 경험(high-level interdisciplinary experiences)이 과학과 예술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과학-예술-인문학 간의 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문화예술 교육의 대표 사례는 여름 동안 운영되는 탐색캠프(Exploration Cam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8학년 90여 명이 참여하는데, 자신의 전공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학교 학생 이외에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프로그램



은 과학, 음악, 미술 분야로 구분되는데, 음악 프로그램은 음악 이론 탐색과 음악 창작으로 크게 나뉘고, 다양한 악기연습, 음악 감상 등을 선택하여 경험하도록 한다. 미술분야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조소와 그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연주회, 전시회, 연구발표를 하는데, 다양한 활동결과물들을 공유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캠프 초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음악수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미술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은 특히 과학분야의 창의성 계발에 문화예술 경험이 지니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유연성을 함양하고 효과적인 자기표현의 방법들을 습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 교육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정리하며

이제까지 교육운영방식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 교육 전문기관인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 미술관의 인프라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 학교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융합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예술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예술의 이론이나 기술의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세 가지 사례 모두에서 문화예술 교육에서의 학습자 경험이 예술가와 유사할 만큼 '높은 수준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지

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했는가에 대한 성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보다는 학생들이 어떠한 수준과 내용의 경험을 했느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핵심 개념으로서 '미적 체험'을 제시한 맥신 그린(Maxine Greene)은 미적 체험을 인간이 성찰적이고 의식적으로 예술과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바로 개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조망, 해석,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적 체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덕주, 남인후, 임미혜(2015). 예술이 교육이다: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
- 김형숙(2001). 공공교육의 장으로서 미술관. 예술경영연구, 1, 62-78.
- 이은적(2013). 학교 미술교육과 연계하는 미술관 교육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36, 243-268.
- Arnheim, R. (1966). Toward a psychology of ar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김재은 (역) (1984). 예술심리학. 서울: 이대출판부.
- Root-Bernstein, R., & Root-Bernstein, M. (1999). Sparks of genius.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 Tatariewicz, W. (1970). History of Aesthetics. PWN-Polish Scientific Publishers. 김채현 (역) (1986). 예술 개념의 역사. 서울: 열화당.
- Treffinger, D. J., Isaksen, S. G., & Dorval, K. B. (저)/김영채(역), CPS: 창의적 문제해결. 서울: 박영사.

[웹사이트]

- 아난탈로 센터 www.annatalo.fi
- 테이트 모던 <http://www.tate.org.uk/about/projects/looking-change>
- 이스라엘 예술과학고등학교
-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source/Learning/three.html>
- http://www.excellence.org.il/eng/_Uploads/91.pdf
- <https://giftedphoenix.wordpress.com/2012/11/15/gifted-education-in-israel-part-three/>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글

•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2016년 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음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누리과정이고 둘째 무상급식이며 셋째 학생당 비용기준 재정배분이다. 우선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 지

방교육재정의 자원 부족에서 기인한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가 국가과제로 최초로 책정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그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자원은 증가한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OECD 교



육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그 비율은 4.7%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의 논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이다. ‘효율화’의 기술적 정의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용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가용 자원 곧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충분성이나 적정성 문제는 간과되거나 제로로 가정된 상태에서 효용 곧 씹쓸이에 대한 통제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1990년 방위세의 폐지와 교육세가 영구세로 확립된 이후 대체로 대한민국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효율화’는 지방교육재정의 논제가 될 수 없었으며 ‘학교는 가난하다’라는 것이 국가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슬금슬금 ‘효율화’라는 의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경제사정이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많이 나아짐으로써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매년 상당 규모의 세계잉여금도 남게 되었으며, 둘째로 교원의 정년 단축과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기본재정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됨으로써 언제부터인가 학교재정의 부족 문제보다는 효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효율성이 요청되던 시점에 마땅한 대응을 하지 못한 데서 발단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는 첫 번째 경고음이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201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과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두 번째 경고음이 들렸다. 2013년에 들면서 마침내 경제성장과 조세수입 증가율 둔화에 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신장세가 꺾였으며, 급기야 세수가 결손되면서 수년 동안 있어 왔던 세계잉여금은 커녕 교부금 규모 축소의 위기에 까지 몰렸다. 경제가 마냥 성장할 것으로 낙관적 착각을 하는 동시에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라는 초유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절벽이 나타났으며, 급기야 2012년에는 5세 대상, 2013년에는 3~5세 대상의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에 따른 설상가상의 형국이 벌어지고 말았다.

현재 시점에서의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는 2000년대를 넘어 서면서 요구되었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위한 요청이 아닌 1990년대 이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안간힘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의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는 어디까지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재정규모의 확대는 잠시 유보하고 현재 있는 재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배분의 효율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임을 먼저 분명히 한다. 물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과제는 매우 광범위 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보다는 2016년 이후 닥쳐 올 지방교육재정의 화두인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생당 배분이라는 세 가지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무엇보다 시급히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혹 벤치마킹이 가능한 해외의 사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누리과정의 긴박성과 효율화 가능성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까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 설계는 재정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실패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012년 최초 설계되었던 것처럼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야 했다. 헌법에 천명하였던 9년제 무상의무교육이 실현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중학생에 대한 학부모 후원금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1970년 제정 육성회비의 후신)가 사라진 것도 2010년 이후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실 재정수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지고 있다. 또 한 가지의 결정적 착오는 소득계층별로 충분히 차등지원이 가능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정수요를 더더욱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사정이 극도로 다른 채로 이원화되어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누리과정으로 무리하게 통합해버림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점도 재정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결정적 패착일 수 밖에 없었다. 누리과정으로의 통합은 당연한 명제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현격한 재정수요의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차별적 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긴박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누리과정에 대해 현재 시·도 교육감들은 이를 국가사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에서 면해 보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더욱 나쁜 것은 지방교육당국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대

책은 지방교육채 발행액 한도를 올려주는 일 뿐이다. 이젠 비효율화를 넘어 재정과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재정적자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전가는 교육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다. 교육의 원론으로 돌아가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때는 언제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것은 당연히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순으로 생각해 왔다.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밝혀낸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 왔던 것이다. 돌쟁이 어린 아이 하나를 돌보기 위해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한 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지만 어느 새 아이는 호기심을 좇아 사고를 친다.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알아간다. 세 살짜리 아이가 한 시간에 열 가지를 배운다면 스무 살의 대학생은 한 가지나 제대로 배울지 모른다. 그러므로 실제 교육비는 어릴수록 많이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로 산다. 마치 공기와 흙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 듯이 우리는 가정의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 그





런데 산업사회가 확산되고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가정의 교육 인프라는 사정없이 허물어졌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나 봐왔던 인구감소와 청소년폭력의 초래이다. 이는 영유아교육, 곧 누리과정의 지체는 초중등교육의 지연은 물론 국가 미래까지 지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제1 의제는 영유아교육과 누리과정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유아교육이 본격적으로 국가교육의 제도와 정책의 대상으로 편입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의 헤드스타트 운동을 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사회마저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이었던 셈이다. 그렇지만 스웨덴을 시작으로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영유아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으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유치중등교육을 국민기본교육단계로 무상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0~2세 이하까지 ECI(Early Childhood Intervention) 곧 조기유아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CI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아와 어린이의 모든 형태의 장애들은 초기에 가급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가 이제 어린이의 출생에서 영아 단계 교육에 까지 관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유아교육 정책의 조기 정착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신생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스웨덴 만의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에서 최근 들어 점차 인구감소세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1980년대 이후 유아교육에 전면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이다. 따라서 근대교육제도가 6~17세 대상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20세기 이후 현대와 미래의 교육제도는 점차 영유아 단계로 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교육의 실패는 곧 초중등교육의 실패를 낳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제1 순위는 이제 초중등교육에서 영유아교육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참으로 시대착오적 공방일 뿐이다. 현재 가용한 재정의 한도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불을 끄려는 지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함께해야 할 문제이다.



Ⅲ. 무상급식의 조기종결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무상급식은 분명 잘못 설계된 재정 정책이다. 숫자 몇 개를 잠시 헤아려 보면 그 답이 분명해진다. 무상급식 정책이 시작되던 해인 2011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 700만 중 무상급식 수혜 학생 수는 15%, 100만 명 남짓이었는데 2014년에는 600여 만명 중 60%를 웃도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 학생 수는 급속히 줄어들

었지만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크게 늘었다. 급식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약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었고 이중 무상급식 지원 재정은 5,000여 억 원 남짓하던 것이 2.5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50조 원 남짓의 초중고 교육재정 중 1% 정도 되던 급식비 부담액이 이젠 5%까지 이르렀다. 아마 2016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무상급식 재정을 둘러싼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으며, 일부 실시했던 국가들도 모두 철회하였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던 기간 동안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과 한 쪽을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명 학교 무상급식 재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경우 6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초중고 학생은 대체로 연령당 학년당 50만 명씩 총 600만 명이며, 3세에서 5세에 이르는 누리과정 재학생도 비슷한 셈법으로 15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들을 위해 총 50여 조 원이 들어가니까 어림 계산으로 유치원생 150만 명에 3조원 가까이 1인당 연간 200만 원 월간 20만 원이 못 되게 지원되는 반면 초중고생에게는 연간 8백만 원 가까이 월간 80만 원 가깝게 거의 4배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하여 유치원 교육비가 초중고생에 비해 적게 드는 것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일수록 선생님의 손이 많이 간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초중고의 경우 20명을 적정선으로 한다면 유치원생은 10명 이하여야만 하며, 교육예산은 대부분 선생님 인건비라고 할 때 결국 유치원생 교육비가 더 비싸야 한다. 물론 교육제도가 발전되어 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녀수 감소로 인해 유아교육제도가 가장 늦게 등장했고 아직도 유아교육은 가정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도 한 몫하는 데서 비롯된 부조화이기도 하다. 결



국 부족한 교육비는 고스란히 젊은 학부모들의 고통으로 귀결되어진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40대 형님네는 월 3만 원 남짓 급식비도 안 내고 도시락 싸는 수고도 더는 대신 사정이 더 박한 30대 동생네는 유치원생 자녀를 위해 급식비와 간식비까지 더한 월 수십만 원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방교육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지역주민의 교육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무상급식도 급하고 유아교육도 급하다. 그런데 교육감들이 돈을 아껴 잘 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국민세금 부담을 늘이지는 말이 된다. 물론 국가와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을 잘 설계해 세원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지방교육예산도 늘어나면 모두 해결될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스스로 벌여 쓰거나 아껴 쓰거나 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대상은 유아교육과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각각 재정배분의 효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볼지 못한다면 교육감은 결국 지역교육에 피해를 안기고 말 것이다. 지금 당장은 초중등학교 재정과 무상급식 재정을 줄이는 일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영유아교육의 결손이 생긴



다면 그로 인해 초중등교육 단계로의 교육결손은 곧바로 이진될 것이며, 그 처치를 위한 재정소요는 지금의 몇 배가 될 것임은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제1 과제는 포퓰리즘으로 잘못 설계된 무상급식 재정을 하루 속히 재편하여 꼭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정을 누리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IV.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당 비용제도의 바른 이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교부금 배분 학생 수 비중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도지역 교육청들에서는 곧바로 학교통폐합 정책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대로 학생 수 증가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시지역 교육청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다. 물론 교육부는 이미 오랜 전부터 냉온탕을 번갈아 왔던 통폐합학교 인센티브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저항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재정 배분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

술 없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는 요원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수술은 정말 근본적이어야 한다. 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은 초중등학교 재정이기 때문에 그 효율화는 곧 학교재정 배분과 운용의 효율화와 같은 말이다.

학교재정 배분 효율화의 근본 방향은 선진국들이 이미 도입한 ‘학생당 비용에 근거한 단위학교 책임경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선 먼저 살펴 보아야 할 선진제도는 단연 바우처이다.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 학교개혁의 중심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차터스쿨의 근간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4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이를 도입한 것은 매우 선진적인 조치였다고 평가되었으나 이후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갈등과 유보육기관 간 갈등을 거쳐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 정책이 표류하면서 제도 정착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이다. 사실 아직도 미국에서는 바우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지만 학교재정 효율화를 위한 정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3~2014년 조사에 따르면 바우처에 근간한 미국의 차터스쿨은 16개 주 6,400여 개 학교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70%가 공립 차터스쿨이라고 한다. 이러한 차터스쿨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기본교육비 바우처를 제외하고도 학교별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수업료 징수와 외부자원들을 모금함으로써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재정 효율화와 개혁의 최선두 주자는 단연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와 자유학교(free school)일 것이다. 아카데미 체제는 지역교육청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비영리 교육지원청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 스스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카데미의 관할 하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일종의 전통적 교육행정기관의 관료적 감독을 벗어나서 학교에 정말 필요한 컨설팅과 장학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원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2011년 4월 처음 실시 당시 629개에 이르던 아카데미는 2013년 11월 기준 3,444개로 늘어났으며, 영국 정부는 중국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아카데미 체제로 흡수될 것으로 다소는 과격한 전망까지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카데미 체제 하의 학교들이 국가교육과정의 틀까지도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이른바 자유학교로 변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영국의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는 1980년대 대처 정부의 교육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교육은 철저하게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고 중앙정부는 90%에 이르는 학교재정을 학생당 기준에 의해 지원만 하였다. 대처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감독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학교재정 운영권한을 전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로 이관함과 동시에 매 5년마다의 학교평가를 강력히 실시하여 부실한 학교의 통폐합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개혁정책은 뉴질랜드와 호주 등 주요 영연방 국가로도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한 곳은 뉴질랜드로 뉴질랜드 역시 1989년 일시에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학교재정 권한을 전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로 이관하는 이른바 Tomorrow School(미래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영국과 뉴질랜드의 자유학교와 미래학교의 재정운용 방식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그것이 단순한 학생당 재정배분을 넘어선 완전한 의미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는 사실이다. 우선 첫째로 학교장은 법인이사회적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달 1회 학교경영 보고를 해야 하는 상임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로 학교경영지표의 핵심은 학부모의 선택에 기반한 학생 수라는 사실이다. 즉 학생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학교재정 배분액수가 많아지고 줄어들면 당연 배분액도 감액되어서 경영과 재정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장으로서의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 부단히 학교개선 노력을 해야 하며, 그 핵심은 교육과정의 꾸준한 개선활동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의 교육과정 개선이 학교 교과목별 내용과 시수의 변동을 의미하며, 결국 그것은 교원조직의 개선까지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국과 뉴질랜드의 교장은 학교 교원의 인사권에 전면적인 자율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학교장의 이와 같은 책임경영 권한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학교의 사정들이다.

결론적으로 학교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란 궁극적으로 학교운





영의 자율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그것은 CEO 교장의 경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뜻한다. 단, 여기서 정부가 학생당 재정배분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학생 1인당 동일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학교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학생당 표준교육비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교규모는 물론, 지역적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모두 감안하여 각각의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하여 산정되며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우리의 경우도 1988년 이후 표준교육비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직원 인건비가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책사업비들이 별도로 책정되고 있어서 정작 표준교육비로 배분되는 재정은 학교운영비의 절반 정도 밖에 못 미치고 있다.

학교는 매년 3월 1일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들은 열심히 1년간의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예산운용계획을 세운다. 이는 2002년 도입된 학교회계라고 하는 훌륭한 학교재정제도 덕분이다. 그러나 학교회계 도입 초기의 최대 목표였던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이후로 점차 줄어들기만 했다. 1년이 지난 이듬해 2월말이 되면 학교회계의 결산액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있으며, 그나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듬해로 넘기는 불용액이 쌓인다. 이는 모두 학년도 중간 중간에 예측불허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때문이다.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광역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과 일반자치단체와 여러 정부부처들도 마치 자신들의 눈물을 대듯 호수를 갖다 쬐는 형국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사업들은 한결같이 매우 복잡한 실행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요구하고

학년말이 되면 온갖 형태의 전시성 보고회까지를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잡무와 비뚤은 상당 부분 이러한 재정지원사업들 때문이며, 학교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만들어 내는 주범들이다.

영국의 아카데미 체제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행정관청의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교에게 모든 재정운용권을 보장하며 그 책무성은 철저하게 학부모의 학교선택을 통해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궁극적 효율성은 이와 같은 학교재정의 자율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V. 근본 대책으로서의 GDP 6% 공교육비 확보

OECD는 2015 교육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GDP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교육에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당 교육비는 최고 수준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OECD는 한국교육의 또 다른 집인 사교육비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담 교육비는 4.7%이며 민간부담 교육비가 2%여서 전체는 6.7%인데, 이는 OECD 평균인 5.3%에 비하면 1.4% 포인트나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부담 재정만으로도 6%가 넘는 나라들도 많다.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비율이 처음으로 2%로 약 0.1% 포인트 정도가 줄어들어 OECD 통계가 시작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칠레에 이어 2위로 내려가게 되어 민간부담을 1위의 불명예를 벗었다고 하나 결코 내세울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왜 GDP의 6%를 최소한 넘어야 하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적은 교육기적이며 그것은 국민의 교육열을 근간으로 하였고, 국민의 교육열은 다름 아닌 사교육비로 표현된다는 사실이 대변하고 있다. 사교육비가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격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투자에 비해 효과는 극도로 미미한 도박비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수요자들간에 경쟁을 부추겨서 사교육 공급자들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교육적 효용, 곧 개인과 사회의 성장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결국 유치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근본 원인은 공교육 체제의 취약성 그 자체이며 그 취약성은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투자의 빈곤에서 비롯된다. 물론 이 글에서 밝혔듯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그리고 학교재정의 잘못된 운용 방식을 재설계함으로써 상당 부분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현재 지방교육재정당국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에서 GDP 5% 공교육비 어젠다가 확립된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한 번도 목표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는 GDP 6% 공약을 선거 당시에만 약속했을 뿐 IMF 경제위기를 핑계로 이후 공교육 재정의 확충 의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고등교육 경쟁력이라는 목표에 치중하여 일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국고지원사업들, 예컨대 유아교육과 영재교육과 교육정보화 사업비들을 조금씩 지방에 떠넘기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급기야 2010년대 이후 포퓰리즘의 광풍 가운데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의 재정폭탄을 안게 된 것이다.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 때에 이르러 잠시 주춤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그리고 스마트

교육 등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증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된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압박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들어 주춤하던 사교육비는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고 있다. GDP 6%와 같은 추가재원의 확보없이 추진된 포퓰리즘적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운용은 절대 규모의 부족과 운용구조의 비효율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학교재정을 더욱 압박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의 과도한 증가는 빈약한 공교육 투자 때문이다. 세계 평균에 비하면 분명 대한민국의 교육비 투자액수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그것이 대한민국 기적의 원동력이라면 분명 그 중 일부는 반드시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누리과정만큼에 소요되는 추가재정만이라도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제도와 구조에서는 결코 초중등학교의 몫을 나누어 누리과정에 재배분될 수 없는 일이며 이미 복지 사이클에 접어들어 버린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재원을 삭감하는 일도 요원하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는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재원의 확충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긴요긴박한 누리과정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특별조치를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영국과 뉴질랜드 식의 학생당 표준교육비 제도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과감히 도입함으로써 명실공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



개성존중교육으로 신사를 키우는 영국. 한국문화가 싹트고 있다



글

김윤기

경기 소사고등학교 교장

한때 세계 인구의 약 25%를 통치했고 거의 동일한 비율의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이 있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 -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였다. 정식명칭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영국 연합왕국(UK)이라고도 한다. 북대서양과 북

해 사이에 위치하며, 프랑스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은 네 지역, 즉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로 구성된다. 잉글랜드는 9개의 지역(Region)으로 구분되고, 또 다시 6개 메트로폴리탄 카운티(metropolitan county), 27개 카운티(non-metropolitan county),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코틀랜드는 32개 주(council area), 웨일스는 22개 지방정부(unitary authorities)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26개의 주(District)로 되어 있다.¹⁾

지금도 선진국으로 세계사의 중심국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일개 섬나라에 불과했던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영국사를 비롯하여 세계사에서도 의문이다.

왜 영국인가?

흔히 잉글랜드를 '최초의 산업 국가'라고 한다. 그러나 유럽의 제국 경쟁에서 영국의 출발은 늦었다. 1655년경 영국이 제국 경쟁에 뛰어들 때 포르투갈은 벌써 대서양의 마테이라 군도와 상투메를 거쳐 브라질의 광대한 영토와 서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에까지 무역 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처럼 후발 주자이면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영국이 에스파냐 제국에 대한 침탈을 통해 일차적 부(富)를 확보한 후 이를 사탕수수 재배나 차 생산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에 박차를 가해 국가의 힘을 키운 영향이 크다. 그 결과 1921년경엔 본토의 150배에 이르는 영토와 전 세계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일부에선 지금의 영국을 석양을 바라보는 나라라고 하지만, 아직도 영국 국왕이 15개국의 국가원수며,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두 배가 넘는 53개국이 가입된 영연방(The Commonwealth)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연방은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구가 아니며, 과거의 역사적 유대관계에서 발전된 회원국들의 자유로운 모임으로서

영연방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캐나다 · 몰타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방글라데시 · 인도 · 스리랑카 · 키프로스 · 나이지리아 · 가나 · 시에라리온 · 감비아 · 케냐 · 우간다 · 탄자니아 · 말라위 · 잠비아 · 보츠와나 · 스와질란드 · 레소토 · 세이셸 · 모리셔스 · 바하마 · 자메이카 · 도미니카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 그레나딘 · 바베이도 · 트리니다드토바고 · 가이아나 · 사모아 · 통가 · 키리바시 · 투발루 · 나우루 · 솔로몬 · 파푸아뉴기니 등이며, 구성국은 영국 본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주권국가이고, 그 집합체를 영연방이라 한다. 구성국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캐나다와 같이 영국 본국과 국왕을 같이하는 군주제 국가도 있고 인도 · 가나와 같이 공화제 국가도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2013 영국 개황] 영연방 [The Commonwealth]

일반적인 상호협력 및 결속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국 간에는 대사 대신 고등판무관을 파견하며, 이들은 외국대사와 같은 특권을 누리나 대사들과는 달리 주재국 각 정부처들과 직접 접촉하며, 영국 여왕과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영연방 정상회의(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정치, 경제 및 영연방 협력 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1) Wikipedia, Local government in England
http://en.wikipedia.org/wiki/Local_government_in_England



우리나라와 영국의 관계

우리나라와 영국은 1883년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영국은 서방국가 중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교국이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56,000여 명의 영국군을 파병하였으며, 현재 영국은 한국이 이룩한 민주화, 경제 성장, 첨단 과학기술, 교육 수준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 영국 내에서 한국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994년 셰필드 대학과 1995년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 한국학 강좌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셰필드대학, 런던대학 등으로 한국학 강의가 확대되고 있다. 또, 영국 내 한국학 연구 증진을 위해 재영 한국학 학회(BAKS: British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가 발족되어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영국 내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약 44,0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초기 이주자들은 주로 유학 또는 업무상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다가 정착하였다. 지금의 한인사회 구성은 교민보다 주재원,

유학생 및 그 가족 등 장·단기 체류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런던 남부 지역의 뉴몰든(New Malden)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지성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 FC에서 뛰면서 교민들에게 활력이 생겼으며, 국내 축구팬들에게도 영국은 더욱 친숙하게 되었다.

영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연합국가 중 2위로 주로 의약과 유통, 금융, 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영국에 대한 투자는 미약한 편으로 판매와 유통, 운송 등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룬다.

영국의 교육제도

영국은 9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를 한 학년으로 보며 3학기제로 운영하고, 주로 요일을 기준으로 학사 일정을 정한다. 학기는 가을학기(9~12월), 봄학기(다음해 1~3월), 여름학기(다음해 4~7월)로 나뉜다. 영국이 추구하는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켜 개인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전인적 인간 양성에 두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제1조 2항에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학생들의 정신적·도덕적·문화적·지적·신체적 발달을 도모하고, 둘째, 학생들에게 성인의 삶에 관련되는 기회, 책임, 그리고 경험 등을 준비시켜준다.

영국의 교육제도의 특징으로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존중하며, 헌법이 없지만 무질서하지 않으며 협력에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교육내용으로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으로 말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변화는 급격한 변혁보다 당시의 사회적 필요에 적합하도록 전통적



인 제도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채택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비교적 큰 교육개혁으로서는 1918년 피셔법(Fischer Act)이라고 하는 교육법에 의한 개혁이 있었는데, 의무교육의 연장, 보습교육의 의무제, 교육의 중앙집권화와 지방자치 사이의 균형유지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재정부족으로 인해 완전하게 실시되지 못하였고, 1926년 이후 학제개혁운동을 거쳐 마침내 1944년 교육법(Butler Act) 제정으로 초등교육(5~11세)과 중등교육(11~15세) 과정을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영국의 학제는 초등 6년, 중등 5년, 후기 중등 2년, 대학 3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무교육 기간은 5세에서 16세까지 총 11년(초등 6년, 중등 5년)이다.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세부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표 1] 한국과 영국의 학제 비교

한국		영국		
학년	학교급	학년	학교급	Key Stage
유치부	유치원	N/A	Nursery Reception	Under 5s
초 1~6	초등학교(6년)	Y1~Y6	Primary School(6년)	Key Stage1(Y1~Y2) Key Stage2(Y3~Y6)
중 1~3	중학교(3년)	Y7~Y9	Secondary School(5년)	Key Stage3(Y7~Y9)
고 1~3	고등학교(3년)	Y10~Y11 Y12~Y13	Sixth Form	Key Stage4(Y10~Y11)

영국의 교육행정 제도는 프랑스의 중앙집권주의나 미국의 지방분권주의 같은 제도와는 달리, 중앙과 지방 사이에 협력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장학행정이나 재정적 원조 등을 통하여 지방교육 당국의 교육계획에 국가적 견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단계(Key Stage)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9월 1일자 기준 만5세이며, Key Stage



1(Year 1~2, 7세 평가), Key Stage 2(Year 3~6, 11세 평가)로 나뉜다. 중등학교는 중·고 구분 없이 5년간 운영되며, Key Stage 3(Year 7~9, 14세 평가), Key Stage 4(Year 10~11, 16세 평가)로 구분하며, Key Stage 4를 마칠 때 치르는 시험을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이수자격 시험)라고 한다.

영국의 중등교육기관은 학생 선발방식에 따라 크게 종합중등학교(Comprehensive school)와 그램머스쿨(Grammar school)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종합중등학교는 대부분의 공립학교(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정부가 부담함)가 이에 해당하는데, 학생의 성적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닐 수 있다. 이 학교는 지역 내 모든 학생을 능력에 상관없이 교육하는데, 이 중 일부 학교는 정원의 50%까지 선발에 의해 학생을 선발(Selective places)하기도 한다. 그램머스쿨은 입학시험을 통한 학업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로, 지역자치단체, 이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잉글랜드 전역에 약 1,300교의 그램머스쿨이 있었으나, 현재는 163교의 그램머스쿨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 학교(Academics)가 있는데, 이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독



립적으로 운영된다. 아카데미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기준, 특수교육 관련 규정, 그리고 정학 및 퇴학에 대한 규정은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카데미 학교는 재정지원을 지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다. 일부 아카데미는 기업, 대학, 다른 학교,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도 한다.

중등학교와 대학 사이에 후기 중등과정인 Sixth Form(2년)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으로 A Level(Advanced Level)과정이라고도 하는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는 구별되며 직업 교육과정과 대학 준비 과정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학부 과정은 3년이 많으나 건축학과, 의학과 등은 6년 과정이다. 석사 과정은 1년이며, 박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3년이다. 중세부터의 전통을 가진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가 대표적이다. 그들 외에도 19세기 이후에 발족한 런던대학교와 기타 새로운 대학들이 있다. 초등교원의 양성 기관으로는 3년제 사범대학(training college)이 있으며, 중등교원은 대학 학부졸업 후 1년간 교직과정을 거쳐 양성되고 있다.



한국어 보급 및 재외국민 교육의 산실, 주영한국교육원

1981년 7월 1일 영국 내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를 보급하고, 재외국민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며, 한국인 유학생을 상담·지도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영한국교육원(원장 김태일)이 설립되었다. 현재 주영한국대사관 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사업을 위해 2012년 3개 학교(초등 2교, 중등 1교)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7개 학교(초등 3교, 중등 4교)에서 방과후 수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국에 적합한 초·중등 교재를 현지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음식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어버이날 및 승의 날 기념 꽃 만들기, 사물놀이, 태권도 등 활동중심 수업으로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사실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 유럽권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어의 경우 GCSE 시험과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서 정규과정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교육원에서는 GCSE 시험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 년 내에 GCSE 한국어를 개발하여 영국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여건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김태일 원장은 말했다.

또한 재외국민 2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영국 전역에서 20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 규모가 큰 곳은 학생이

350여 명에 이르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1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부모 모두가 한국인인 학생부터 다문화 가정의 학생까지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3~6시간 동안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 정규 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한국사 등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교육원에서는 한글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예산(2015년 약 £105,000)을 지원하고 교과서 및 교재 보급(연 2회, 약 2만 권), 교사 연수 및 동포 저명인사 초청 특강, 한글날 기념 재영 한글 학교 연합 글짓기 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장학지도 및 방문 협의회 등을 수시로 추진하여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원 자체 개설 강좌로 성인외국인을 대상으로 수 준별(초·중·고급반)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2시간씩 운영되는 성인반 강좌에는 K-Pop이나 한국 드라마가 계기가 되어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학생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강생도 있다. 수강생들의 열의와 적극성에 호응하여, 앞으로 한국과 관련된 더 많은 미디어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원은 국비 유학생을 포함하여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학생회와의 교류, 유학생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영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 초청 대학원 장학생을 선발하고, 한국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문화와 전통, 경제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영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



만 영국에서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주영한국교육원의 노력이 조금씩 쌓이면, 머지않아 신사의 나라 영국에 한국의 문화가 피어날 것이다. ♪

[참고문헌]

- 제국(EMPIRE), 닐 퍼거슨, 김중원 역 2006. 민음사
- 새로 만든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2012. 김영사
- 런던의 짧은 역사, AN, 윌슨, 윤철희 역, 2005. 을유문화사
- 영국사, 앙드레 모루아, 신용석역, 2013. 김영사
- 영국적인 너무나 영국적인 박지향, 2010. 도서출판 기파랑
- 2013 영국개황, 외교부, 2013
- [Wikipedia] Local government in England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



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정책·평가센터 센터장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 센터장

I. 능력중심과 대학진학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채용시장에서 화두는 단연코 능력중심사회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능력중심사회라는 말은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능력중심사회

는 있었고 1990년대에도 있었다. 그 이전인 1980년대에도 1970년대에도 있었다. 능력중심이란 용어는 어떤 시대에나 구직활동과 경쟁구조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절대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능력중심사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

회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계급사회에서는 집안의 내력이 곧 개인의 능력과 권위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면 근대에서는 학력이라 할 것이다. 즉 높은 학력, 정확히 말하면 학벌은 개인의 능력과 미래의 권위를 알려주는 대단히 힘 있는 능력의 신호 지표인 셈이다.

학력이 개인의 성공과 능력을 보장하던 1980년대 이전에는 대학입학 경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0년대 중반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대학 설립의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80%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학력의 급상승은 학력이 더 이상 노동과 채용시장에서 의미있는 신호기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도 함께 만들었다. 학력이 더 이상 취업에서 뚜렷한 신호기제가 되지 못하자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차별화하기 위해 스펙쌓기라는 끝없는 경쟁구조 속에 뛰어들게 된다.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대학 진학률에 대한 조정으로 국가는 취업률 지표에 기반한 대학평가를 통해 국민이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 구조조정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학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취업과정에서

학력 이외의 다양한 스펙쌓기에 치중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능력중심은 새로운 신호기제의 요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력 철폐, 학벌 철폐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은 학교의 명성에만 의지하여 인력을 채용하지 말고 개인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으며 재학 중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고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기업을 비롯한 사회가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대학에 대한 요구는 상아탑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직무능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높은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바로 눈높이 시각이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학생들의 현실성 없는 높은 눈높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불신이 포함되어 있다.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 졸업장만으로 과거 고졸자들이 하던 일은 기피하고 좋은 일자리만을 찾다보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모든 대학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완수하였다면 능력중심사회의 실현





과 청년층 고용 문제를 풀 열쇠는 기업이 지니게 될 것이다. 기업이 채용시장에서 학력과 스펙이 아닌 순수한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기만 한다면 대학 또한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능력중심사회 실현, 정확히 말하면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현재 기업의 채용문화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능력중심과 채용시스템

현재 시점의 기업의 채용 선발을 보기에 앞서 조금 과거 시점의 기업의 채용 구조 특성을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즉 기업의 선발기준을 2005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표 1]에서 기업의 채용 시 선발기준을 보면 2005년에는 업무능력(직무역량)이 3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력으로 17.0%, 전공이 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11년에는 업무능력(직무역량)이 2005년보다 10%p 낮은 2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공과 경력이 동일하게 1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채용 시 선발기준은 직무역량에서 전공과 경력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용 관행의 미세한 변화는 기업이 점차 실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전에는 기초역량 중심의 채용에서 이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다. 직무역량이 좋다는 것은 학교를 막 졸업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공통 기초 직무능력을 학교에서 배울 수는 있으나 그 회사가 원하는 세부적이고 직접적인 즉 당장 현업 투입이 가능하여 성과를 보여줄 정도

의 업무능력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 없는 직무역량만으로 채용시장을 확대할 경우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직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1년도 자료에 업무능력을 선발기준으로 삼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2011년 기준 '업무능력'을 선호하는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207명으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도 채용 선발 시 업무능력의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인성, 도덕성, 잠재능력'등을 선발 1순위로 꼽은 기업의 평균 상시근로자수(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가 1,723명이었으며 '팀워크, 출신학교, 학교성적, 자격증,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의 평균 근로자수는 1,210명, 반면에 경력직 선호는 431.5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당장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 선호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고 대기업은 '인성, 도덕성, 잠재능력'과 '팀워크, 출신학교, 학교성적, 자격증, 외모'와 같은 스펙¹⁾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상준(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선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스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학 스펙이 학벌이나, 직무 스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어학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중심의 채용, 또는 능력중심의 채용방식에서 능력과 직무의 범위에 대한 기준

1) 이와 같은 '스펙중심 선발기준'을 선호하는 기업이 대체로 '승계 및 핵심 인재육성' 인적자본 투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스펙중심 선발기준'으로 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핵심인재로 육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기업이 승계 및 핵심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채용 시 선발기준

2005년도			2011년도		
채용 시 선발기준_1순위	빈도	%	채용 시 선발기준_1순위	빈도	%
업무능력(직무역량)	152	33.48	업무능력(직무역량)	115	23.0
경력	77	16.96	전공	99	19.8
전공	67	14.76	경력	99	19.8
학력	59	13	학력	82	16.4
인성/도덕성	49	10.79	인성/도덕성	70	14
잠재능력	18	3.96	잠재능력	13	2.6
팀워크능력	10	2.2	자격증	5	1
출신학교	8	1.76	외국어능력	5	1
학교성적	5	1.1	출신학교	4	0.8
자격증	5	1.1	팀워크 능력	4	0.8
기타	2	0.44	학교성적	3	0.6
지역연고	1	0.22	외모	1	0.2
외모	1	0.22	지역연고	0	0
			기타	0	0
합계	454	100	합계	500	100

주: 1) 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원자료 기공

2) 2011년도에 '외국어능력' 항목이 추가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 최근의 기업채용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 민간단체²⁾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명 30개 공기업의 채용선발방식에서 실질적 학력제한을 한 공기업은 86.2%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을 개인의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로 과대하게 인식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보다 능력중심 채용에 한 발 다가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기업에서 주로 원하는 스펙은 어학점수, 자격증, 한국사, 수상경력, 해외연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조폐공사의 사무직 지원이 가능하려면 850점의 토익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격증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단순 자격증이 아니라 고급자격증 이른바,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원하고 있어 학력이 낮은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학점수를 원서에 기입해야 하는 기업은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수상경력이나 해외연수를 기재해야 하는 기업은 각각 27.6%, 13.8%로 나타나고 있어 앞의 이상준 연구와 같이 선망의 직장인 공기업을 가려면 어학과 고급자격증이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필기시험과 요즘 능력중심사회, 또는 능력중심 채용문화의 선봉에 선 NCS 채용관련을 보면 공기업의 69%가 전공 필기시험을 치루고 있으며 NCS 기반 필기시험을 치르는 곳은 93.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NCS 기반 시험과 채용은 기본적인 수준의 직무에 대한 부분만을 검정하는 것으로 완전한 직무중심의 NCS 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엄밀한 NCS 채용이 되려면 기업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직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동만(2015) 연구에서 실시한 500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사적 직무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4%로 절반이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장주희 외(2015) 연구를 보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NCS 채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기관에 맞는 채용시스템 구축,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서류전형에서 경험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계량화할 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중심의 NCS 채용을 너무 강조할 경우 오히려 신규직보다 경력직이 더 우대되어 청년층에게 역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NCS 채용

2) 이하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2015년 10월 7일(수)에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업은 여전히 범용적 인재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직무중심의 채용을 선호한다면 기업에게 직무능력 인력과 범용 인력을 동시에 채용할 수 있는 NCS 채용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NCS 채용 확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전히 있으나 NCS 정책으로 인해 채용시스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움직임은 바로 직무내용의 강조인데 롯데그룹의 경우 과거보다 직무역량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스펙테클채용이다. SK그룹에서도 바이킹 챌린지라는 무스펙채용을 통해 능력중심 인물을 선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도 논술 시험에서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직무상황논술로 바뀌고 있다. 결국 기업이 아직 초보적이고 완벽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과거와 다르지 않는 채용결과를 보여줄지언정 능력중심 채용시스템에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학의 대답은 바로 재학생들이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능력중심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Ⅲ. 능력중심과 대학의 역할

현재 능력중심사회와 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떠한 형태인지 충분히 살펴보았다. 따라서 대학의 변화와 노력도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대학이 지성의 상아탑으로 학술적인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하라는 것도 아니며 취업기관으로 확실히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취업을 위한 또는 학교에서 배운 자신의 전공을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학교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방식은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매우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지는 것이다. 가장 대학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학생들의 직무경험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재호 외(2015)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GOMS2012)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재학 중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2]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졸업자들의 참여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인·적성 검사 등 직업심리검사와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의 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모두 50%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조차 절반 이상의 학생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대학 취업지원 부서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지적한 것과 연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에서는 교내 취업박람회(34.2%)와 면접 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33.8%)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는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의 참여자 비중이 37.9%로 높은 반면 교내 취업박람회는 24.0%로 4년제 대학에 비해 참여자 비중이 낮았다. 이는 전문대학에서의 취업박람회가 4년제 대학에 비해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캠프는 14% 정도로 참여자 비중이 낮는데, 이는 취업캠프가 상대적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대학에서 재정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대학 재학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별 참여자 비중

항목	4년제			전문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49.9	46.4	53.9	42.0	39.5	43.9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45.9	44.1	47.8	41.9	39.0	44.0
교내 취업박람회	34.2	35.7	32.5	24.0	28.4	20.6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33.8	32.5	35.4	37.9	33.8	40.9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28.6	27.7	29.5	27.6	26.5	28.5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23.1	21.0	25.4	22.7	20.6	24.3
취업캠프	14.2	14.4	14.0	14.1	13.7	14.3

자료: 정재호 외 (2015)에서 인용

[표 3] 대학 재학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

항목	4년제			전문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83.9	83.7	84.2	81.8	79.0	83.6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 포함)	81.0	79.5	82.4	79.4	77.1	80.8
취업캠프	75.7	76.4	74.8	75.6	77.7	74.0
진로, 취업 관련 교과목	72.7	74.1	71.3	76.5	75.6	77.1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72.3	73.4	71.3	74.9	74.2	75.4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69.5	69.2	69.8	71.2	68.4	73.1
교내 취업박람회	67.0	68.3	65.4	65.1	63.8	66.3

[표 3]에서는 재학 중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한 프로그램이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들 가운데 면접기술 및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에서 80% 안팎의 참가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캠프의 경우에도 참가자의 4분의 3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취업캠프는 상대적으로 참가자 비중

이 낮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학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채용관행이 과거 일반적 직무능력에서 점차 특정한 영역의 직무적성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교육은 여전히 일반적 직무능력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은 당장 현업에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이런 현업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다.

물론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졸업자가 실제로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대학교육과 기업의 직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대학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주로 하는 것이 인·적성 검사와 같은 검사, 교육위주의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인턴과 같은 기업직무와 관련한 체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대학이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직무경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섭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나동만 외(2015), “능력중심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준·변숙영(2015), 「도대체 채용시장에서 어떠한 스펙이 중요한데?」 한국고용정보원 패널 학술대회 발표
- 장주희 외(2015),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한 직무역량중심 채용시스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재호 외(2015), “대학취업지원센터 운영실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2015년 10월 7일(수) 보도자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의제'와 한국의 역할



글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I. 서론: WEF 2015 의제에 따른 후속 조치

2015년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

한 21세기 최고의 교육행사가 되었다. 이 포럼(WEF: World Education Forum 2015)은 전 세계 167개국의 정부 수반 및 교육장관, 교육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 글로벌 사회의 교육발전 의제를 제안하였다. '세계교육포럼 2015'는 '인천선언'을 통해 세계교육의 발전을 위한 5대

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글로벌 의제로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보장, 교육의 형평성, 교육의 포용성, 양질의 교육 제고, 평생학습사회 실현 등이 제안되었다.

사실상 위의 5대 글로벌 교육의제는 지난 70년간 한국의 교육 성장 과정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성과와 향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가장 한국적인 교육 개혁 성과 분석을 통해 세계적 담론 차원의 글로벌 교육협력 및 교육개발 전략을 추출한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가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한국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을 글로벌 발전 전략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이외에도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였다. 특히 글로벌 5대 교육의제는 2000년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회의 이후 15년 동안의 글로벌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글로벌 교육비전과 협력전략을 제안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국제시민사회단체 및 국제 NGO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와 관련된 여러 논란 속에서도 향후 글로벌 교육협력전략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보장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선언을 통한 글로벌 교육의제는 전 세계 국가발전전략 및 개발협력을 총괄하는 교육분야의 개혁 메신저로 등장하였다. 국제사회는 지구촌 발전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여 Post-2015 발전의제와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이는 주로 UN을 통해 지구촌의 번영과 공생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제를 준비한 것이다.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Post 2015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UN 정상회의’는 거시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각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발 달성목표를 확정하였다.

이 글은 그런 면을 주목하여 UN이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육부문이 추진해야 할 세분적인 실천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UN 주도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2015년 이후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따라 추진하는 전 세계의 교육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세기 교육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한국이 국가수준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역할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UN 및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혹은 선진국과 연계하는 전략으로서 한국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글로벌 교육협력과 SDGs 교육의제 검토

1.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개발협력의 쟁점

미국 뉴욕에서 2015년 9월에 열린 ‘Post 2015’ 개발의제에 대한 UN 정상회의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포괄 정리하여 각 세부 분야별 달성 목표와 방향, 세부 내용 등을 확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SDGs 세부 분야별 목표

구분	목표	비고
목표 1	빈곤 퇴치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영양	
목표 3	보건 증진	
목표 4	포용적·형평성 있는 교육 보장, 평생교육 추진	'인천선언'을 계승
목표 5	성 평등, 여성 역량 강화	
목표 6	식수 및 위생의 지속적인 이용 관리	
목표 7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보장	
목표 8	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목표 9	인프라 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목표 10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목표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	
목표 15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목표 16	평화적 사회,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제도	
목표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천수단의 강화	

UN이 선정한 '2030년까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17대 과제'는 모든 사회의 인프라 및 산업구조, 지구촌 생태계 보호, 평화 및 국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 목표로서 "포괄적이면서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포함한 평생학습"을 제시한 것은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의 '인천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확대·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선언'은 2030년 교육을 총괄하는 혁신협력 비전으로서 이미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제안하였다. 즉,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교육비전으로서 대략 다음과 같은 5대 교육의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

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모든 국가에서 최소 9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한다. 둘째, 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격리, 불평등,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평성과 관용, 포용성 등을 강조한다. 셋째, 모든 국가에서 남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양성 평등을 실현한다. 넷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위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래서 학교교육 현장의 학습환경과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가치, 태도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다섯째,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고등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한다.

더구나 '인천선언'은 다양한 분야와 집단의 논의를 수렴하는 등, 난민 및 이주 정착민을 포함하여 분쟁지역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포용하는 교육체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 교육가들은 2015년 5월의 인천선언과 그 이후 7월의 '오슬로 교육개발협력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보편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보 등의 투자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수준에서 교육 달성도를 제고하려면 여아 및 여성에 대해 교육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취약 지역 및 재난지역 등에 대한 교육위기해소전략이 '지원을 위한 실천 로드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고급 노동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양질

의 교육과 직업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우수한 교원양성 및 연수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인천선언 등이 제안하고 있는 교육협력 및 ‘교육비전 2030’정신은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교육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글로벌 교육협력은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개인의 삶과 국가의 발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육은 지구촌 공동체가 글로벌 시민의식과 양성평등의식,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계와 평화교육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근본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육의 궁극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사회 및 경제, 정치사회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천선언이 제안하는 ‘교육비전 2030’은 교육분야에 대해 글로벌 협력 수준의 과감한 교육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곧바로 글로벌 사회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세부 전략으로서의 교육협력 목표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이후 15년간 지구촌 개발전략으로 활용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높은 수준에서 계승한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는 Post-2015 의제를 종합·포괄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면적이면서도 전 방위적인 개발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크로스커팅 이슈, 즉 ‘범 분야 협력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제가 여타 다양한 분야의

개발의제와 상호 연계·협력하면서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테면, 빈곤퇴치 전략으로서 교육혁신이 요청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 전략으로서 직업기술훈련 및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제안한 세계시민교육(GCED)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함께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지구환경 보호, 평화체제,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구축하는 기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모든 이를 위한 발전개념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교육발전 전략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여아 및 여성교육 현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아 및 여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아 및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환경 및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지역공동체 사회의 성숙한 여권의식 및 평등권 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아 및 여성교육의 제도적인 정착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반에 근거하여, 세계시민의식 혹은 글로벌 교육역량을 공감하도록 하는 국제사회 혹은 국가 간 교육협력전략을 요청할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교육분야 세부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글로벌 이슈로서 '인천선언'의 실천정신을 계승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전혀 볼 수 없던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설정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학생이 교육현장에 전반적으로 참여하여 학습 성과를 거둔 것에 의미를 두는 것, 그리고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모든 계층 및 공동체의 교육문화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협력전략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개발협력전략으로 강조하는 인도주의적인 협력정신도 이와 같은 보편적인 평등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의 '인천선언'은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교육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강조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며, 앞으로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개발협력은 충분한 공적개발협력재원(ODA)과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공적 재원(OOF)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교육협력 전략

2015년 9월 UN 정상회의가 발표한 17대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교육분야의 목표는 사실상 '인천선언'을 포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를 통해 모든 이를 위해 포용·포괄하면서 평등한 기반의 양질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진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사실상 '인천 선언'을 통해 제안한 글로벌 5대 의제의 기본 정신과 추진 목표, 세부 실천계획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제4목표인 교육분야 전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제4목표 교육분야는 다음과 같이 7대 세부 목표를 제안한다. 첫째,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를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업성취도 및 교육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초등 및 중등교육은 무상원칙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보육 및 영유아 교육, 초등 이전 의무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한 여건의 보육과 아동발달교육, 초등이전 준비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해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문기술교육 혹은 4년제 대학수준의 전문교육과정까지 포함하는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수준에서 적정 비용을 확보하여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수준의 전문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2030년까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활동, 적정 수준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직업

기술훈련을 집중 실천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능 및 기술 보유자를 최대한 늘리도록 한다.

다섯째, 2030년까지 교육의 양성 평등을 완전 실현하고, 모든 사회적 배려계층, 취약계층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및 성과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즉, 교육에 대한 여아 및 여성교육의 접근을 강화하고, 각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장애인, 소수민족, 토착원주민, 교육 취약집단 등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기술훈련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최소한 2030년까지 전 지구촌 사회의 모든 청소년, 그리고 대다수의 일반 성인 남녀가 일상생활을 자체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능력 등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곱째,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활양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교육, 환경생태계, 우주관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 역량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 제4목표 교육전략'은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학습 환경 및 인프라를 제공한다. 즉, 아동·장애인·성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 세계 개발도상국 중에서 특히 최빈국, 도서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이공계 고등교육 재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개발도상국, 특히 도서지역 및 최빈국의 교사 훈련 및 양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결국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세부실천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및 긴급 인도주의 교육개발협력이 요청되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협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교육의 협력과제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인천 선언'을 통해 UN이 추구하는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제4목표 교육협력으로 계승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교육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글로벌 교육협력 및 교육혁신을 위한 모범적인 공여국 사례가 되기 위한 의무이자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교육이 지닌 혁신역량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공유·홍보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육의 혁신사례이며, 미래 글로벌 교육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신흥공여국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글로벌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지난 100년간의 교육발전 성과를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고 공유하는 지식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잘 드러났듯이, 한국교육의 공과를 그대로 발굴·연구하여 전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지구촌 사회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지구촌 200여 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지난 교육경험과 유사한 경로를 거치는 국가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국적인 여건과 역량에 적합한 교육협력사례가 바로 이 KSP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글로벌 교육발전협력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지원 경비로 최대의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는 전략이 요청된다. 사실상 한국의 교육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자체가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개혁 이슈로 주목받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 사회의 교육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 내부의 교육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추진전략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 혁신방안 등은 한국 내부의 교육개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사회가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할 수 있는 '계기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공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OECD DAC(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이며, 국제기구와 개발협력 사업을 연계·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신흥선도국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해야

하는 위치와 역할 측면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은 '제4목표 교육'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 및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개도국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협력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유치전략 및 육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UN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전략과 연계하여 교육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Post-2015, 즉 '교육비전 2030'을 위한 교육협력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교육협력전략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개발협력전략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공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간 협력 및 제휴를 통해 단일한 추진경로와 신속한 실천성과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인천 선언'을 통해 제안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확대된 국제교육 개발협력의 인도주의 정신을 활용하여, 한국이 제안한 '세계시민교육'을 연구·보급·보편화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제안하는 '인천 선언' 정신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조화롭게 융합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Post-2015 SDGs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모범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1년, 교육현장에 안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글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IMF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은 '30-50 클럽'에 가입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간 눈부신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글로벌 변동성, 스마트 혁명과 세계통합의 가속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등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온 한국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 추격형 경제가 아니라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선도형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열정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난 2년여 동안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 확대(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교육정상화 추진을 위해 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년 3월 제정되어 9월 12일 시행되었다. 시행 1년을 맞아 공교육 정상화법의 성과를 검토하고, 현장 안착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본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본 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 및 추진 현황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수요의 유발요인이 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전까지,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준비라는 이유로 3년의 교육과정을 2년에 마치는 관행이 지속되곤 했다. 입시에서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들은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곤 했다. 교육부와 권익위가 2013년 7월 실시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응답자 중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으며(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차지), 학교 수업과 시험을 쫓아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이 사교육 참여 학생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제정(3월), 시행(9월)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필·수행평가가 금지되었고 ② 대학 입학 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가 금지되었으며 ③ 학교 및 대학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 부과 및 징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④ 학원 등에서 선행교육에 대해 광고하거나 선전

하는 행위 역시 제한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온 학교의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교사들은 수업·평가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의 중요도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출제문항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대학별로 실시된 2016학년도 논술 등 대학입시에서, 출제진이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연수를 실시하였고, 출제단계에서 현직 교사의 검토를 거치는 노력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도모하고 있다.

II.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편,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후, 일선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선택 및 개설 자율성 저하로 방과후학교 운영이 축소되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5년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교과 관련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가 13.4% 감소하였다. 이에, 방과후학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교육수요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8월 1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해소하고, 복습, 심화, 예습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수요에 부응하며, 농산어촌 등의 지방소재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위해 방과후학교 규제를 완화하였다. ②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 제출의무를 부여하였으며, ③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III. 공교육정상화법 현장 안착과제

1. 학교현장: 교사의 사기진작 및 평가전문성 제고

가. 학교별 상황에 따른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교사와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학교교육에 대해 만족하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은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지침은 시·도교육청에 의해 수립되나, 학교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편



성·운영하는 주체는 교사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착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북(교육부, 2014)에 제시된 것처럼,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면, 공교육정상화법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별 여건에 맞는 범교과적 협의체를 두어, 교과 간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협의하는 방안 역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선행학습과 관련한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도서지역은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육환경을 보완한다면,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교육주체의 호응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완화를 통해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평가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 중 하나는, 교사들의 '문항출제의 어려움'이었다. 교과 담당 교사가 1명뿐인 소규모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협의회의 운영 및 검토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 할 때, 교사의 출제역량 강화는 공교육정상화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요 요인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별로 개발되어 있는 현장 지원용 도움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주로 교장이나 교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일반교사들에게는 학교 차원의 전달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이해한 수준이나 안내하는 방식 등에 따라 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정도나 체감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공교육정상화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출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집행과 더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수에 더 많은 교원이 참여하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의 평가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담당자 워크숍을 더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차후 유사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2. 방과후학교의 효과적 시행 및 질 관리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효과적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해선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행학습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2월 통계청 조사결과,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절감액은 초등학생 58.9만 원, 중학생 54.1만 원, 고등학생 13만 원) 또한 교육부는, 학기 시작 전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방과후학교 학생만족도: (2012) 75.8 → (2013) 78.7 → (2014) 80.7 → (2015) 83.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포함된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2012년 연간 48만 원 지원 → 2013년 이후 연간 60만 원 지원), 대학생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예: 2015. 4. 11~7. 18 진행된 토요일프로그램 '함성소리'의 경우, 115개 동아리 865명의 대학생이 109개교에서 활동). 앞으로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된 이후, 공교육정상화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교육주체별로 법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실시된 공교육정상화법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약 90% 이상이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선행출제 금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의 경우 약 60% 정도만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현장 안착을 위해선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 강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사,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 6대 과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및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들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취지, 내용, 기대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에 대한 사전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홍보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충분히 활용되고 활용도가 높아지기까지는 홍





보자료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정기적인 정책포럼의 개최, 공교육 정상화법 매뉴얼 배포(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시·도교육청 등), 학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지속하면서 교육 주체의 공교육정상화법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 정책 모니터링 강화

학교현장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그룹을 조직하는 것도 공교육정상화법의 교육현장 안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정책 담당자, 교사, 학부모 등의 다양한 관계자들로 구성된 행복교육 모니터링단을 조직하였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현장과의 소통확대 및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확산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모니터링단은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출제 금지 정책 실시 이후 학교현장의 변화, 선행교육·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인식개선 현황' 등을 확인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공교육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

다. 학부모 연수 활성화

학부모들의 이해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현장에 올바르게 안착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 학부모지원센터(전국 94개)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효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선행학습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선행학습 예방 전문 강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학운위 학부모,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교육개혁과 사교육 경감 정책 등을 설명하여 학부모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복교육 토크(충남(9.22), 경남(10.13), 대구(10.14), 울산(10.23), 강릉(11.2), 청주(11.6) 등) 및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2015. 10월말~12월까지 총 10회 진행)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변화 속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변화 열망은 매우 높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공교육 정상화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워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교육주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2년간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대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적인 이상의 성과를 일구었다. 비전과 성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 제고’ 로드맵, 우리가 만든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글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

I. 글로벌 교육협력의 핵심활동으로서의 국제교육개발협력

2015년은 글로벌 교육협력분야에서 역사적인 전환기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

포럼’에서는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새로운 미래교육 의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4개월 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000년에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승인하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17개의 유엔 지속가능 개발목표 중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됨으로써 이전보다 강력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15 세계교육포럼’과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강조된 주제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변화’이다. 이는 인류가 ‘개발’을 위한 지난 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이었는지, 인류가 추구한 개발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일련의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제사회 리더들은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개발이 아니라 모든 인류, 특히 지구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개발의 목표이자 중요한 추진 기제로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11년 HLF-4 및 2012년 부산 APEC 교육장관회의 유치에 이어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려는 글로벌 협력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국제 정치 및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력 수준에 맞추어 지구촌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한 지구촌사회 개발에의 기여가 국가적 과업으로 부상하면서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교육정책연구기관이 개발협력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교육개발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동 분야에서 연구·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정부를 도와 2011년 HLF-4 및 2012년 부산 APEC 교육장관회의에 이어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세계교육포럼 개최국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교육 의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인류의 삶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 걸음 더 깊숙이 다가서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내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를 전신으로 하여 2013년에 출범한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지난 10여년 간 이룬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개발 협력 싱크탱크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I.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미션 및 운영 방향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글로벌 협력 활동을 가장 활발히 펼치는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2013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은 글로벌교육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와 글

로별 교육연구 리더십 제고를 기관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글로벌교육연구본부를 신설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이러한 기관 차원의 미션을 수행하는 핵심 연구실로서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내 교육개발 협력의 외연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를 견인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발협력 신흥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활동은 ①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 인큐베이팅에 기여하는 기초 및 실용 연구 수행, ②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정책의 설계, 실천 방안 및 평가 연구, ③ 기술 협력 등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 인큐베이팅에 기여하는 기초 및 실용 연구는 광범위한 지역 및 국가 내 교육현황 및 교육개발협력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교육개발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국내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다. 또한 교육개발협력사업 아이템 발굴 이외에도 교육개발협력사업 실행에 필요한 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역시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이 교육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지향하는 연구분야이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두 번째 활동 축은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의 설계, 실천방안 제안, 평가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 개발협력의 실태 및 현황 분석 연구,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전략, 세부 정책 과제 설계를 지원하고, 정책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다양한 정부 개발협력 정책 및 개

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 등이 이 분야에 포함된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세 번째 활동 축은 기술협력이다. 기술협력은 연구, 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학술행사, 연수, 개인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 주요 내용은 ①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분야 개발협력 정책 등에 대한 컨설팅, ② 선진공여국·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을 주제로 다룬 공동연구 등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교육 발전 경험에서 ‘개발’ 전략의 틈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이와 같은 글로벌 요구에 대응하는 국가 싱크탱크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Ⅲ. 주요 연구·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지원은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교육연구본부 내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출범 이후 줄곧 실의 핵심과업으로서 수행되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2015 세계교육포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세계교육포럼 의제개발 및 행





사준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한국교육개발원 내 ‘2015 세계교육포럼’ 전담부서로서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준비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지원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2015 세계교육포럼’ 지원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세계교육포럼 의제개발 연구이다. 201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개발’, 「2015 세계교육회의를 위한 한국의 교육경험 의제개발 및 확산지원 사업」,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등 여러 연구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글로벌교육 의제인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추진 경과 및 성과 분석,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의제 논의 과정 추적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 지원, 특히 한국정부가 지지하는 주제인 세계시민교육을 의제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원한 것도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글로벌 교육의제에 관한 연구가 선제적으로 수행되었기에 가능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연구 이외에도 교육부가 위탁한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가장 근거리에서 밀착하여 지원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세계교육포럼 지원은 ‘2015 세계교육포럼’ 본행사 특별세션 운영,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기획총괄 및 한국교육개관 전시관 운영, 교육부의 전체 행사 기획총괄 지원,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로서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홍보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의 주제발표와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이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삭스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2015 세계교육포럼 특별세션’은 국내외 포럼 참석자들에게 교육과 발전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개 교육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한 2015 세계교육포럼 옥내 상설 전시관 운영과 10개 기관이 주최한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국제포럼을 총괄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육정책연구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관한 기초연구는 국책연구기관 내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던 2000년대 중반부터 선도적으로 수행되었고,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연구실의 중추적 연구과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개도국과의 교육협력방안 연구’는 국제교육개발협력실의 대표 연구로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방식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동 연구사업은 2007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지역별로 3개 년씩 총 9개 년에 걸쳐 수행한 획기적인 연구이다. 2015년에는 과테말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및 교육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개발협력 요구조사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방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안하는 동시에 중점추진과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방안을 거시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논의가 총론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추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도국과의 교육협력방안 연구’는 개발협력 준거모형을 적용하여 개도국의 교육현황과 쟁점 등에 관한 기초 조사와 분석, 국 가별 협력수요 발굴, 그리고 단계별 협력사업의 제안이라는 틀 을 가지고 한국정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실태와 이슈, 이들 국가를 대 상으로 한 교육개발협력 현황 이해에 기여하고, 정부가 교육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의의를 갖고 있다.

기초연구 이외에도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교육개발협 력 정책 연구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분야 정책연구 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교육개발원 내 연 구부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교육개발협력분야의 정책 설계, 정 책 실행 및 정책 평가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가 발주한 ‘중점협력국가별 교육 협력전략 개발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중점협력국가의 교원 교육분야 협력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의 틀 안에서 교육이 중점 협력영 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와 교육개발협력을 추 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KOICA로부터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 교육부로부터 ‘교



육부 ODA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모니터링하 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간 다른 교육분야에 비해 교육개발협력분야에서 정책연구 를 활용한 정책의 기획-실행-모니터링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육개발협력 참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향후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정책연구 수행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제교육개발협력연 구실의 역량과 노하우가 가장 잘 나타나는 활동이다. 널리 알려 진 바와 같이 교육개발협력분야에서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 성은 분야 전문성, 개발협력 전문성, 지역 전문성 등으로 다면적 이다. 대개 이러한 세 개 축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가는 찾 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개발협력 연구나 사업은 대개 여러 전문 가들이 협업을 통해서만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 개발협력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트워크는 업무 수행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실은 지난 10여 년 간 축적한 교육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국내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교육개발협력네트워크(<http://nice.kedi.re.kr>) 웹사이트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이러한 활동은 국내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연구와 사업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교육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네트워크 구축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개발협력 과업의 특성상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업무수행은 필수불가결하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2000년대 중반 아시아지역 국가 및 지역기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와 양자 및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13년부터는 중남미지역 국가에 더하여 지역기구인 OEI, 개발은행인 IDB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네트워크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의 국제차원의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지역협의체, 글로벌 기업, 학계 등을 망라한다. 국제교육개발협

력연구실이 지닌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은 국제포럼이나 세미나 개최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Global Education Forum에는 세계비교교육학의 저명학자인 Carlos Torres를 비롯해 UNESCO 본부와 방콕 지역본부에서 글로벌교육 의제 설정에 깊이 관여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지난 한 세대 동안 국제사회 의 담론을 이끌었던 교육의제 형성과정과 성과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에서는 공식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Global Policy Dialogue on Quality Education for All 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OECD 교육국장, World Bank 교육 전문가, UNESCO 국제교육통계국장, Intel 글로벌 교육 전략연구개발 국장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교육개발협력 인사들이 교육혁신 전략으로서 창의인재 육성 정책의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연구와 사업, 학술 활동을 기반으로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내실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 나가고 있다.☞

바른 인성과 즐거운 배움이 있는 행복학교 - 경기 남양주 별내초등학교



글

문일요

소년한국일보 기자

“우리 학교 자랑이요? 학생들 위해서 두 팔 걷고 나선 선생님 들이지요.”

교사의 으뜸 덕목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이 필수다. 남양주 별내초등학교(교장 최영주) 교사들은 ‘전문적 학

습공동체’와 ‘학년별 수업친구’ 등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교수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교 자랑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을 앞세운 김명순 교감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별내초등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공부 자세까지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여러 주제의 자율장학을 펼치는 남양주 별내초등학교를 찾았다.

‘명품 수업’ 향한 교사들의 쉽 없는 열정

남양주 별내초등학교 교사들의 노력은 남다르다. 대표적으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있다.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교육과정 연구와 더 나은 학습 및 생활지도 방법을 모색한다.

여기에서 보다 구체화된 소모임이 ‘학년별 수업친구’다. 수업 친구는 같은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2~3명이 짝을 이뤄 보다 나은 수업기법을 찾아가는 모임. 이 모임에서 선생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발문 연구다. 과거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였다면 요즘은 지식을 깨우치게 해주는 사람으로 역할이 변화되면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옛날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준다. 선생님들은 시간을 쪼개가며 좋은 발문을 뜻하는 ‘마중물 발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박정환 교사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무지개 동아리’ 회원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 월 2회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는 ‘책다방 동아리’와 감정코칭 연수, 자율장학 등 다양한 연수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업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교사와 함께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빼놓지 않고 있다. 글쓰기 교육부터 미술 치료, 리본 아트, 어린이 안전 지도까지 여러 주제를 아우르는 학부모 아카데미가 연중 실 새 없이 열린다. 이에 학부모도 화답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매달 ‘사랑의 스마일 데이’를 정해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학교의 지원에 보답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실 현장 짝 채워

이 같은 교사들의 노력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각종 연구모임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교실 현장을 짝 채우기 때문. 지난 4월에는 과학의 달 특별 프로그램으로 별자리 캠프가 진행됐다. 4학년 가족 2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기 월식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년별 수업친구인 4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도로 마련됐다. 이론수업을 맡은 김태훈 선생님은 별자리와 행성 이야기, 달의 위상 변화 및 월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실습교육에는 지철훈 선생님이 나서 망원경의 원리와 간이 망원경·달 관측 자료 만들기를 진행했다.

지역단체들과 연계해 조성된 학교 교재원 '오감만족 생태체험 학습'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교과서에 나오는 야생화와 텃밭 식물 등 수십여 종의 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생태 학습장에서 풍겨오는 저마다의 향기와 형형색색의 빛깔이 아이들의 발길을 끌어당긴다. 평소 교재원을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교과시간에는 관찰 일지를 쓰며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있다.

또한 지난 1학기에는 남양주 대한노인회의 도움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정산 숲 체험과 텃밭 가꾸기, 수생 식물원 관찰 등을 실시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자치활동으로 창의와 배려 쑥쑥!

'바른 인성과 즐거운 배움으로 꿈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바로 별내초등학교가 내걸고 있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후 교육 활동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교생이 디자인과 기타 등 모두 23개 동아리에 참여해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3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디자인부의 활약이 눈부시다. 지난 2004년부터 4년 연속으로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에서 으뜸 디자인 학교로 뽑혔던 별내초등학교는 올해에도 UCC·회화·디자인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 밖에 서로의 소리에 집중하며 배려하고 협동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오케스트라부와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다지는 배드민턴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치어리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꿈을 다져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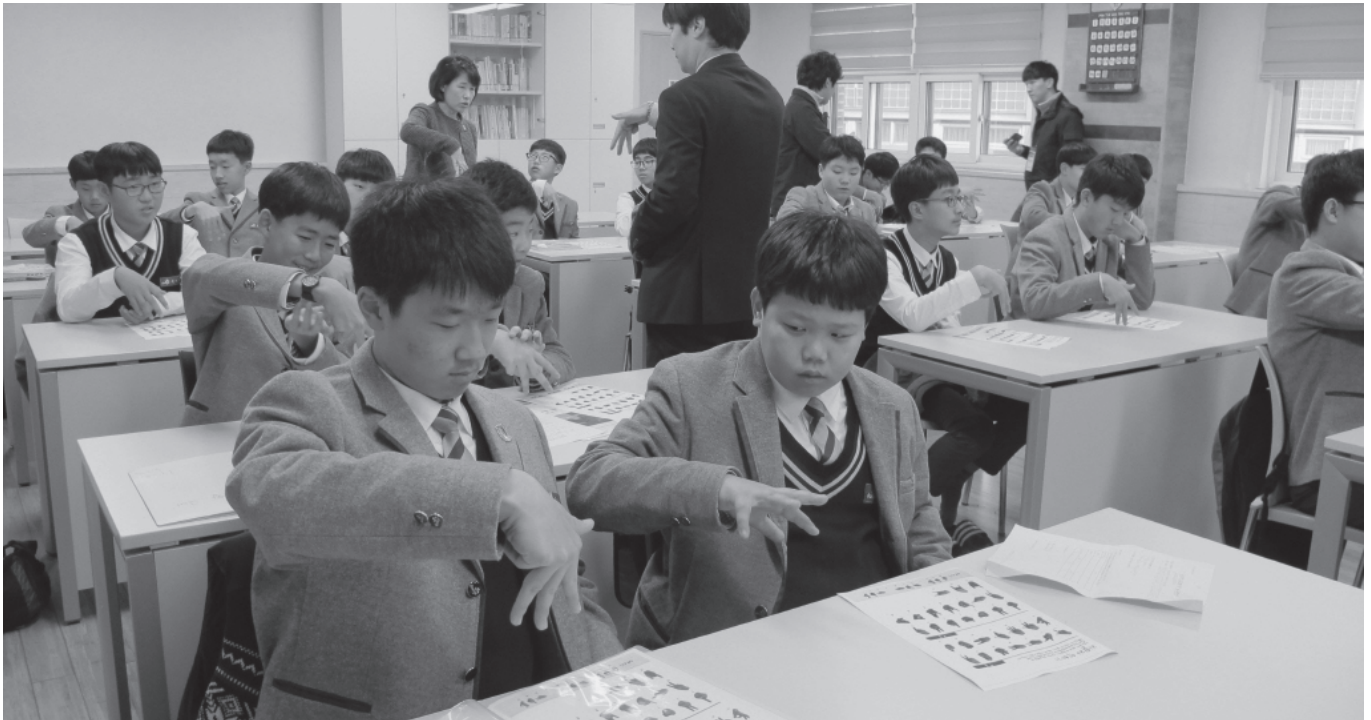
별내초등학교의 또 하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친구 간 고민을



듣고 풀어주는 '또래 상담'이 있다. 또래 상담의 주축이 되는 상담자로는 1학기 때 장성실 수석 교사로부터 집단 상담과 공감의 방법 등 상담과정을 이수한 6학년 12명의 학생들이 맡고 있다. 상담자로 활동 중인 임동규 군은 "먼저 진심으로 다가가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의 마음이 보여요. 사춘기 친구의 고민과 속상함을 들어 주며 저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됐지요"라고 의젓하게 말했다. 12명의 또래 상담자들은 늘 학급 친구의 고민이나 친구 간의 갈등을 듣고 학생들 스스로 풀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별내초등학교 최영주 교장은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는 행복 배움터다. 선생님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학교 등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호흡하고 끼를 만나다 - 충북 제천 대제중학교



글

원선구

대제중학교 교사

자유학기제와 첫 대면하기

“여름방학 잘 지냈어요? 방학이 좀 짧았죠. 자, 오늘은 2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랬죠. 교과서 잠깐 펴볼까요?”

“선생님, 시험 없죠?”

무뎀던 여름방학이 지나고 8월 하순의 개학날 첫 수업시간,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해서 벅찬 기쁨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했을 때 학생들이 던진 첫 마디이다.

“선생님, 시험 안 보죠?”, “진짜로 시험 안 봐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더욱이 여름방학 막바지에 자유학기제

교원능력역량 강화 연수를 다녀온 나로서는 사실 조금은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응이었다.

‘시험은 안 보지만 평가가 얼마나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단순히 시험을 안 본다는 말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에는...’

그렇다. 시험은 학생들의 가장 큰 적이며, 부담이며,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인 것이다.

다음 주에 바로 2학기 평가계획을 교과별로 제출하라는 연구부의 전달이 있었고, 자유학기 평가와 관련된 선생님들의 협의회에서 평가의 방향과 교과별로 적용할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작년 말부터 자유학기제에 대한 각종 연수와 매스컴에서 홍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일선 학교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의외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시켜 나갈지 막연한 중압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세달 남짓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간 교과별로 많은 협의회와 연수들이 있었고 지금은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자유학기제에 익숙해진 듯 평온한 모습이다.

생동감 있고 참신한 체험학습...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성장하다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 이전부터 체험학습의 효과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잘 인식하고 다양한 수련활동, 학교 축제, 학년별 활동, 봉사활동, 학급별 사제활동 등을 브랜드화 하여 이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도했음을 자부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를 들고 교실에서만 만나는 것에서 벗어나 학교 뒤편에서, 인근 영월의 동강이나 월악산에서, 노인요양병원에서 학생들과 끊임없이 함께 즐기고 경험했다. 그 누적

된 활동과 선생님들의 인식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선호하는 이유가 되었는데도 모른다.

그러한 활동들의 기저에는 학생들의 잠재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애정 그리고 열정이 있었다.

지금의 자유학기제를 통해 이루려 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의 발현,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래 전부터 학생들로부터 이끌어 내려 한 것이 아닐까?

“내년에 1학년 또 하고 싶어요!”

사실 기존의 강의식 수업방식이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자신도 좋아하는 수업방식은 아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이 “이제는 수업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보면 나 자신도 공감을 하게 된다.

수업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토론하는 수업방식을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에 1학년 학생 88%가 선호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런 방식의 수업을 좋아할까? 설문결과를 보면 직접 활동하면서 협력하고 참여하는 수업에는 다





양한 활동이 있고, 41% 이상의 학생들이 그런 활동들로 인해 수업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여러 교육학자들이 말했지만 일단 수업은 재미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분히 동기유발 측면이나 학생들의 집중력과 기억지속력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재미있게 느낄까? 어떤 활동들이 있기에 그럴까?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여다 보았다.

먼저 학생이 수업의 주인공이 된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행동을 드러내려 한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이 수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수업에서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하고 같은 생각으로 이끌어 내려 노력하게 된다. 그런 활동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지루할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활동중심 수업에는 많은 결과물이 남는다. 색종이 접기를 통한 작업도 수업에서는 각종 정다각형의 결과물이,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통한 수업에서는 각 기둥과 원뿔 등 입체도형의 결과물이 자신의 작품으로 남게 된다.

Visual thinking을 활용한 웹툰 그리기 수업에서는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자신만의 웹툰 작품이 남게 되며, 내가 만든 한자 수업에서는 여러 한자들의 생성원리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자신이 창조한 한자가 탄생되는 것이다.

티볼과 인라인 수업은 어떠한가? 일반 체육수업에서는 활동하기 힘들었던 색다른 게임을 함으로써 학업과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 레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무엇인가 본인 스스로 주도해서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하며 소통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면 다음 수업시간이 조금은 기다려지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한다.

“선생님, 내년에 1학년 또 하고 싶어요!”

“학생들 통제가 어려워요”

자유학기제의 학생들의 모습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자유가 아날까 싶다. 물론 ‘자유’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나이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유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먼저 스스로 그 어떤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또한, 아침 일찍부터 등교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자.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말이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외부적인 그 어떤 구속이나 얽매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반대로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자유’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정해 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

면 더 인간적인 것이 아닐까?

자유학기가 시작되고 2~3개월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요”, “오늘 아이들 꾸중하느라 수업을 거의 못 했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등의 하소연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이 정말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일까?’ 담임으로서도 문득 겁이 났다. ‘학생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질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도 이해정도를 떠나서 사회규범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들도 끊임없이 지도하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수업은 학생과 교사의 인간적인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수업에는 반드시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는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끊임없이 중요시 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배움 중심 수업에 날개를 달다

2009년도에 ‘교사에게는 내 교실을, 학생에게는 특별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교과교실제를 실시하였다.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듯이 이런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수시로 학년간, 교과간 선생님들의 협의와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어려운 점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2013년 A타입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교실 리모델링과 함께 각 교과 특성에 맞는 기자재와 환경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교과전문성을 높이는 수업을 지향하였으며 각 교실에는 교과별로 특화된 기자재와 수업준비물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많은 연수와 강연도 있었다. 배움의 공동체 관련 손우정 교수 강연, 협동학습 집합 연수, 혁신학교 탐방,

진천고 ‘거꾸로 교실’ 탐방에 이은 거꾸로 교실 운영 담당교사 연수, 배움의 공동체 수업 나눔 강연 등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2015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운영과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자유학기제는 나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수업모형의 적용과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를 제시해 주었으며, 학생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이 교사 스스로에게도 어디로 가야할 지 되돌아보고 자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학생중심 수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수업연구와 협의를 통해 교수-학습방법의 혁신을 추구하였고 수업의 노하우와 교사들의 잠재된 역량을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 1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배우고 표현하는 수업의 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소통하는 배움을 기본으로 무한한 꿈과 끼가 잠재된 학생들에게 그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다양한 진로체험과 지도로 직업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갖게 해야 함은 물론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지켜보며 적절한 때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교사의 작은 소망이 아닐까.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보다는 바로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하지 못한 이야기

‘교과서를 떠나고 싶은 욕구’와 ‘교과서를 떠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매순간 갈등의 끈을 놓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으신 것 같다. 자율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답이 없는 고민일 수도 있으리라.

자율과정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크레존 등의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별다른 수업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매 시간의 수업자료를 스스로 개발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그렇다. 실제로 기본교과 시수 1시간, 자율과정 시수 1시간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경우 지도학생은 시수별로 180명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두 개의 항목이 별도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결국 360명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평가결과 기록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기본교과와 자율과정을 모두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 학기를 교차해서 운영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적절한 편성과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걱정하실 모든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과 연구진 대제중학교 방문, 학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가져



“학생들, 자유학기제 시행 후 호기심과 학습동기 강해져… 학력저하에 대한 일부 우려 해소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재구성 등 ‘수업의 변화’ 통한 교육력 향상에 힘써야”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진은 지난 10월 16일 대제중학교를 방문, 학교현장을 둘러본 뒤 학교장·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담당 교사들은 경험담과 성과, 개선사항 등을 얘기했으며, 백 원장과 연구진은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방침이나 향후 계획, 현안에 대한 대안 등을 피력하였다. 대화내용을 간추렸다.

백순근 원장 :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평범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들을 듣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꾸고자 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장 방학 중이라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응환 교무부장 : 우리 학교는 8월부터 심화학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어설프지만, 제가 독일에 출장도 다녀오고 컨설팅도 받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10월에는 서울 네이버 본사와 과천 체험학습장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또 12월에는 2~3학년이 시험을 보는 시기에 진로체험 수준을 넘어 전시회, 발표회, 특강 등을 포함한 자유학기제 축제를 개최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처음에는 진로지도 위주로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민 중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무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모시고 기자재도 많이 구입했어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예산의 경우,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에서 자유학기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미 있는 예산에서 자유학기제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면 외부로 이동을 한다가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응환 교무부장 : 애로사항이 있다면, 외부에서 하는 진로체험을 하려 할 때, 제천 관내에 있는 체험학습장은 대개 30명 이하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6학급입니다. 충주까지만 나가려 해도 버스를 대절해야 하고, 특강 강사를 모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원선구 교사 : 아이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평가가 없다보니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교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트렌드가 배움 중심, 거꾸로 교실, 협동학습 등이고, 이런 것들이 수업에 도움은 많이 되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통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념 위주보다는 그룹 위주의 수업에서 이해나 지식이 깊어질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켜드리기는 합니다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국적인 정책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평가를 할 때에는 중간 중간 형성평가와 자기성찰평가를 계획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결국 기록에 남는 것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문구는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점수가 기록되고 교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학생만 기록하면 됐는데, 지금은 시험은 안 보지만 수업활동에 관한 것을 한 명 한 명 기록해 줘야 합니다. 교사 연수 때 샘플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전국적으로 샘플을 배포하게 되면 그게 모범답안이



되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써야 하지 않나 하는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불편하신 겁니다. 부장선생님이랑 몇 분이서 최소화하기로 협의하면 최소화해서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학생이 잘하고 있는 점을 하나라도 드러내 주고 격려해 줘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교장: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려면 일부의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교육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 시험 안보네? 그럼 공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과외나 학원으로 가거든요.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도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참여형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주어 학생들의 교육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학원은 언제나 그런 부분들을 파고듭니다.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나서 교과나 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흥미가 높아졌는지, 교우관계가 좋아졌는지 체크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국교육개발원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선구 교사: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강사 초빙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를 쓰면 매번 지출이 되지만, 만약 선생님이 한 학기 시간을 할애해서 외부 강사가 하는 강의내용을 배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한 차례의 경제적 지원으로 그 선생님은 계속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백순근 원장: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더 배워서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을 지도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어려운 게, 만약 왜 방과후에도 일을 주느냐 라던가, 내가 국어교사인데 바리스타를 배워서 국어 수업 줄이고 그것을 지도하라고 하면 오히려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한 분이 자신의 전공과는 별도로 하나의 특기나 전문영역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한다거나 자율선택 과정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라도 지정해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자유라는 말이 시험으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의 자유도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적어도 한 학기 동안은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여러가지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철균 연구위원: 다른 학교들도 보면 교장선생님이 너무 학업 측면을 강조하시면 선생님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이 성적에 대해 압박을 덜 주는 것이 선생님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예전의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상당한 가능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순근 원장: 그렇습니다. 저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정리: 편집자) ♪

작은 꿈을 큰 행복으로 키워 줄 자유학기제 - 충북 단양 매포중학교



글

·
이광희

매포중학교 교장

난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지금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필자가 학창시절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걱정거리였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나의 학창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상담을 해보면 가정·친구·외모에 대해 고민

도 많이 하지만,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꿈을 찾고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바라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지역사회의 재능 나눔, 지역사회에의 따뜻한 소통이 되다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한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뭐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은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 모든 기부는 아름답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도 보장되리라 생각한다.

[표 1] 선택형 프로그램

순번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1	국립공원 지킴이	국립공원의 소중함과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2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스페셜	숲의 가치를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리 학교에서 실시한 자율과정 선택 프로그램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강사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내실 있고 진지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뜻있는 전문가의 지역사회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다. 우리 지역에 위치한 소백산 국립공원북부사업소와 단양군 국유림사무소와 MOU를 체결하여 교육기부를 받는 형식을 취했으며, 아래와 같이 총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립공원 지킴이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로프사용법 등을 통해 갑작스런 사로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 줌과 동시에 역할놀이를 통해 자연환경 해설사의 역할을 알려 주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스페셜은 숲의 가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시연 학생은 “평소에 해 보지 못한 수업에

대해 색다른 느낌을 받았고, 미래의 희망 직업란에 숲해설사를 새로 적어 넣고 싶다”고 말한다.

꿈 찾기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율과정 진로탐색활동(주 2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매월 1, 3주에는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에 위치한 한국호텔관광광고의 협조를 얻어 바리스타반, 제과제빵반, 요리실습반 등을 운영하였고, 매월 2, 4주에는 제천산업고에서 교육기부를 받아 네일아트반, 헤어디자인반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실무능력이 있는 미용예술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어울림 속에서 미래의 꿈 키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다.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긴 호흡으로 멀리 가야 하는 것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매포중학교에서는 토요일과 후 학교를 통해 '힐링 UP! 명품 예술 동아리'를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각종 악기(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의 선율 속에서 공감하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인성교육 및 감성교육과 어우러진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 및 학교 스포츠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서순화를 통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광희 교장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부딪히고 뒹구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배우고 '多 행복한 학교'로서의 꿈을 펼치는 기회를 가진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행사를 주관한 이광희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웃음이 많아진 것이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학교에도 역동적인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다.

PC방 가던 아이 여가생활 바뀌어... 새로운 꿈 만들어가

현실이란 미로가 꿈에게 길을 묻다

요즘 아이들을 꿈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고는 한다. 꿈이 무엇인지 물으면 '없는데요'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다. 꿈도 없이 학교 시험에서 1등이 되기 위해 바쁘게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업체험과 직업진로설계를 통해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고자 단양군과 매포읍 일대의 직업 체험장 17곳에서 지역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직업체험처는 단양경찰서, 다누리도서관, 단양우체국, 제천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장수한의원, 단양 서울병원, 매포농협, 신협, 파리파게트, 여우미용실, 남광식당 등 17곳으로 4시간여 동안 진로직업체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학년 권시연 양은 "평소에 한의사가 꿈이었는데 한의원 체험을 통해 나의 꿈과 목표가 더 확고해졌다"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찾도록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이 견고해졌고 지금부터 그 꿈을 위해 도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는 소감문을 발표했다. 때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담당교사로서 보람되고 뿌듯했던 순간이었다. 이제는 PC방에 자주 가던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바꿨다는 학생들도 생겼다. 한 학생은 이번 학기 초반에 경험한 제과제빵 만들기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고, 네일아트를 첫 경험한 한 학생은 보기만 해도 알록달록하고 달콤한 네일아트에 푹 빠져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느꼈던 점은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응원해준 점은 자신의 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꿈과 끼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접한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적성과 흥미를 알고,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며, 자신과 공감대가 비슷한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14살 사춘기 시절이 의미 있고 열정적이었으며 행복했기를 바란다.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과 연구진 매포중학교 방문, 학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가져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올라온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모습을 보면 훨씬 창의적이라는 거 느껴져... 자유학기제는 진로체험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변화가 중심이어야”

지난 10월 16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연구진은 매포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자유학기제

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백 원장과 연구진은 자유학기제 관련 정부 정책과 현안 등을 설명했고 담당 교사들은 교실의 변화, 고민거리, 지원사항 등을 얘기했다. 대화내용을 정리했다.

백순근 원장: 저희가 이렇게 방문한 것은 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부차원에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는지,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드려야 좋을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반대로 좋은 점들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대 교무부장: 자유학기제 운영을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감도 잡지 못하다가 이제는 연수를 다니면서 배우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에게 좋겠다 싶은 것들을 찾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았고, 시험은 보지 않지만 자유학기제에 맞는 평가모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1학년 2학기 학생들에게 운영하면서 오전에는 수업이 돌아가고, 오후에는 자율과정으로 예술·체육활동, 진로 탐색활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하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자유학기제가 진짜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학생들 체험학습으로 춘계, 추계 소풍을 가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고민이 되었고,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희 진로부장 : 제가 교직생활을 29년 정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자유학기제가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 중에 선생님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었던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선생님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매편에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올해는 도교육청이든 지역 사회든 찾아와서 해주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더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가지 문제는, 자유학기제의 대상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던데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나 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등학교 입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광희 교장 : 도시 아이들은 질 좋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다소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체험을 해도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인데 도시의 경우는 제1금융권에 가서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골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하나 사서교사 : 저희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수업에 대한 협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사서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융합수업에 거부감이 있다고 하니 융합교과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한 자료들을 모아서 수업준비를 하다보니까 교과끼리 연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모르셔서 수업을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 개인 한 분이 모든 교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순근 원장 : 학교 규모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과 선생님들끼리 잘 뭉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다른 교과가 관여하는 걸 싫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혜진 연구부장 : 자유학기제의 중심이 진로탐색인지 교과수업의 변화인지 교과수업을 실생활과 연계에서 뺏어나가는 것인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실질적으로 초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이 진로 쪽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 자유학기제지원센터에서 중심에 두는 것은 중학교 교육을 좀 더 체험중심으로, 학생중심으로 바꾸어주고 거기에 필요하면 학교의 여건에 맞게 동아리나 예술·문화활동, 선택 프로그램, 진로체험이 포함되게끔 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육과정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수업방법도 바꾸어야 하고 평가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하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어렵고, 또 하나만 바꿀 수는 없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들의 자료, 활동계획을 새로운 학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진 연구부장 :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올라온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수업할 때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창의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학생중심의 수업이 됩니다. 다소 소란스럽기는 해



도 나중에 정리하고 발표하고 집중하는 것을 보면 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해서 그런 건가 싶습니다.

신철균 연구위원 : 그런 경험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또 2,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면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본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교과서를 얼마나 많이 봤는가를 떠나서 그때가 아니었으면 스스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선생님에게 다른한편으로 학생들에게 보람과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순근 원장 : 예전에 처음 연수할 때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하셨지만 한 학기도 마음대로 하시지 못했는데, 한 학기만이라도 마음대로 수업해보시고 평가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해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걸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저를 의심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지려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교장선생님이 행복해지셔야 하는데, 선생님이 행복한 것은 해보고 싶었던 수업이나 활동, 평가 등을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면서 보람과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한 학기라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수업을 해보시면서 그것이 학생들에게 전파되고 다른 학교로도 전해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면 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유학기제가 당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정리: 편집자) ♪

'세상의 빛이 되는 인재' ·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학교' 만들기 - 경기 파주 세경고등학교



글

이준화

세경고등학교 교장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대한민국 좋은 학교, 대한민국 행복학교, 학교문화 선도 우수학교,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인성교육 우수모델 학교'... 세경고등학교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식어

의 화려함과 달리 세경고등학교는 경기북부 파주의 전형적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45년 전 설립된 특성화 고등학교다.

세경교육의 목표는 학교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世景(세상의 빛)이 되는 아이들을 육성하고 학교 자체도 지역사회



망이 되겠다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성과로 학교가 서열화되는 교육질서와 인식 속에서 세경의 교육목표는 어쩌면 비정상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세경은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목적, 소통되는 가치,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미래 교육의 지향점을 실천하는 학교가 되고 싶다는 세경의 꿈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시 배움에 대하여

특성화 학교라고 해서 학생이나 교사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실',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사', '꿈을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 그러나 교육현장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은 배움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떠나거나 남아 있어도 실질적으로 배움과 학교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과 교사들로 가득하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며 학생의 성공에 따라 학교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구태의연할지 모르나 좋은 선생님과 좋은 가르침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결과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처음 한 시도는 학습 내용과 방법의 혁신이었다. 더불어 학습할 수 있는 협동 학습과 문제기반 학습(PBL), 프로젝트 학습 등의 탐구식 교육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였다.

수업혁신은 지속적인 일상에서의 실천이 담보되어야 함을 아는 교사들은 '교실이 변하면 학교가 변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일상적 수업공개와 수업 분석회를 실시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공동체를 위해' 학부모와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기도교육청 GSBT(Good School-Best Teacher)에 3년 연속 선정되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활기찬 배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세경의 교실 안에서는 의미 있는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안팎의 배움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수업혁신은 수업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근본적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의 고민을 배제한 교육은 교육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경은 아이들이 사람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민감할 수 있도록 가치와 체험 중심의 교육을 중시한다. 이는 기독교 학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전통시장 살리기, 내 고장 하천 살리기, 사랑의 집 고치기, 벽화 그리기’ 등과 같이 일상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고 실험과 실천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스스로 선택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은 “창의성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공동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삶과 삶이, 창의와 인성이 서로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을 오가며 세상의 빛(世景)이 되는 세경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숨겨진 교육과정

“어! 그거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해 봐!” 세경의 아침과 점심에는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이 열린다. 바른말 소식지를 나눠 주고 우리말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언어를 바꾸어 나가는 바른말 누리단, 장애체험 등을 통해 인권과 약자보호 등의 가치실천을 확산시키는 인터랙트, 한 생명 살리기를 위한 잔반 줄이기 캠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블루밴드의 플래시 몹 등.

학생들의 가치와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과적 지식보다 ‘학교의 분위기(문화)’라고 생각한다. 단지,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를 배우는 것 말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통되는 가치, 질서 등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또 하나의 배움을 얻는다.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배우지 않는 것’을 통해 더 큰 배움을 얻는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배움’을 통해 부정적 언어 사용 빈도 횡수를 줄이고, 학교폭력 발생률을 0%로 만들어 나가

며 자신의 주변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공감, 나눔, 정직, 정의, 인권,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체화하게 된다.

함께하는 교육

“세경은 학부모를 너무 자주 학교에 불러요.”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며 하는 불평이다. 세경이 추구하는 교육활동은 학생 중심, 또는 교사와 학생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가치로 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학교 주체들 간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학교 교육방향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세경교육’을 위해 해마다 학교의 기본 교육방향과 가치 및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 설명회를 시작으로 매 학기 학년부의 교육활동 보고와 협의회, 진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교육공동체 토론회, 학생 자치회 주도 캠페인 및 행사 활





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술심리여행, 학부모와 함께하는 산행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경험하며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 학교 교육에 대한 세경 학부모의 신뢰가 높은 것은 그렇게 '함께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세경의 교육과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편적 가치의 내면화와 일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다. 여느 학교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정규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리더십교육, 품성교육, 학생자치활동 등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학교규범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저 없이 말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

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교칙위반률도 현저하게 줄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5년에 0%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기와 진로개척 동기가 함양되어 진로태도 성숙도 조사 결과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태도 성숙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거의 없어 학업중단률은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낮다. 높아진 학습 동기와 진로개척 동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소위 상위권 아이들이나 도전합직한 국제건축올림피아드 대회, 전국인문학경진대회, 창업대회 등에 거침없이 도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서울여대 바롬 인성연구소의 인성 수준 측정결과, 타 고등학교 학생 621명과 비교하여 인지, 정의, 행동 등 모든 면에서 세경고 학생들의 인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의 중단연구 결과 역시 학년이 올라갈 수록 도입, 깨달음 단계에 있던 학생들이 적용, 완성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지식수업의 강화로 만들어 낸 인위적 결과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일궈낸 세경교육이 만든 결과이다. 세경고의 이러한 교육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해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평생 배움을 이어갈 아이들의 좋은 시작점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과 연구진, 세경고등학교 방문, 학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가져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사회’로 시선과 마음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이 종국에 가서는 생활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연구진은 경기 파주 세경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선생님들과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백 원장과 연구진은 교육활동 과정 가운데 생기는 현상과 변화 등을 선생님들로부터 듣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학교장과 선생님들은 수업 개선, 학생들의 변화, 우수사례 등을 얘기했다. 대화내용을 정리했다.

백순근 원장 :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되는 일에 대한 연구도 하고, 많은 세부적인 정책도

수립하며,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세부적인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세경고등학교가 소위 말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인데도 창의·인성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강북에 있는, 강북이라기보다는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학교이면서도 창의·인성교육을 특별히 잘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정말 얼마나 잘하나 보러 왔습니다.

이준화 교장 :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도록 하는 게 과제인 학교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잘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데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창의·인성교육이었어요. 왜냐 하면,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칭찬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잘 가르치려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후 조금씩 공부도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성중 3학년부장 : 초기에는 저희에게 어떤 문화들이 있었느냐 하면, ‘다 안다.’ 교사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다 안다.’라는 문화가 있었대요. 두 번째는 ‘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애들 가지고 어떻게 해, 교복 찢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고 이런 애들 가지고 어떻게 해.’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걸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감선생님이 ‘교사 선생님들부터 기본을 지키자’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배명길 교감 : 세경고의 교육 중 첫 번째가 아이들한테 가치중심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의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EBS에 '미래를 여는 특성화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우수학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활동을 하고 바른말을 사용하며 학교폭력예방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들이 전파를 탔어요. 또,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1학년 때 '성공하는 청년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사회'로 시선과 마음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이 종국에 가서는 생활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안광현 진로상담부장 : 이런 활동과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의 인성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바른인성연구소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인성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 일을 계기로 바른인성연구소에서는 가설을 바꿨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들이 변화된다.' 이런 것들이 종래의 가설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세경을 보니까 외부활동만 시켜도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백순근 원장 : 세경고에서 만든 '나, 너, 우리'라는 매거진을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네요. 특히 인성교육 같은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세경고의 노력과 성과가 더욱 값지고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원래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안 해서 못하는 건데, 그런 힘이 어디

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장내 웃음)

안광현 진로상담부장 : 2005년에 특성화고가 되었고 그 전후로 저희가 일반학교에서 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는 청소년의 7가지 습관' 같은 교육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 3년 동안은 가장 좋다는 대안학교나 반대로 가장 힘들다는 학교까지 현장을 찾아가 보고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 학교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리하고 방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시작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하여 기부도 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배우게 되었고, 동시에 봉사의 가치, 삶의 의미까지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먼저 배우고 몸소 행하면서 아이들, 부모님들까지 배우고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너희만 해라." 해서 아이들만 지도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부모들이 먼저 하고 아이들이 보니까 "따라갈 만하다." "좋아 보인다." "우리들도 저 교육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이 되는 교육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성규 2학년부장 :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 전략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다양한 시도와 용기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그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은 좀 느끼는 거 같아요. 워크아웃 타임미팅과 같은 연수를 할 때 교장선생님은 밖에 계시도록 하고 학교 문제에 대해선생님들끼리 치열하게 격론을 벌이다 보면 진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것

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팩트에 관한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 또 추려내면 결과적으로 나온 문제가 별 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대단한 문제가 아닌 실제 교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자주 겪고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나아진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민주적인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리더십도 발휘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중 3학년부장 : 저희들이 3년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담임을 하면서, 이걸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실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3년 담임을 해서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운 다음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찾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자기 효능감이랄까 만족감을 느꼈고 부모님들도 크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서중호 교무부장 : 창의·인성교육의 성공적인 결과로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전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잡아서 프로젝트 형태로 학기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애니메이션, 건축CAD, 자동차정비 등 4개의 기능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대회에서 산업용 로봇,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는 등 매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별로 다양한 연구들을 하게 되고 성과를 내면서 직업군별로 자율 동아리까지 합쳐서 모두 55개나 되는 동아리들이 생겨나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대회에 나가 입상실적을 거두는 우수한

동아리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순근 원장 : 과별로 모집을 하면 어떤 과이냐에 따라 학생들의 성향과 특성이 다를 것 같은데, 동아리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과하고 무관하게 하나요? 그리고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공통수업 같은 것을 많이 하나요?

박기범 연구부장 : 수업 같은 경우 전공수업을 주로 하지만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수업도 적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 자체를 과끼리 융합해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각 과에서 수업을 받고 하지만, 방과 후라든가 다른 시간에 모여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과랑 디자인과가 합쳐져서 캠핑카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건축과랑 전자과가 만나서 도시의 전기기반시설과 같은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수업에서도 이처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핵심 팀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5개 팀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기주 1학년부장 :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별 특성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독특하게, 대부분의 특성화 고등학교는 과 중심 체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과 체제와 학년부 체제를 병행해서,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형태와 특성화 고등학교 형태를 절묘하게 같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은 사실 1학기가 되면 학년중심으로 대부분 올라가다가 중간부터 전공 이수시간이 많아지면 과 특성으로 아이들이 가져갑니다.



백순근 원장 : 10년 차 전후가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데, 10년 차 전후가 안 바뀌면 사실 바꾸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초임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바뀌는 거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좀 쉬운데, 10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계신 선생님들이 주로 바뀌고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초기에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배진우 체육활동부장 : 혁신이라든지 개혁의 아이콘, 또는 뭔가 울림을 줄 수 있는 강사나 석학, 전문가들을 모셔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각계의 지식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 강연하는 것을 찾아가 듣는 일을 자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동기부여랄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초임이나 부장 선생님들은 물론,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도 변화되고 도전하는 여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백순근 원장 : 대개의 경우 어떤 비전을 가지거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실제로 실천을 하시는 거 자체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개 연수를 받거나 강연을 듣기는 해도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자신의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고 자기의 현실을 바꾸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처럼 훌륭하신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세경고 학생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리: 편집자) ✍

무감독 시험에 학과중심 행정 도입... 개혁 드라이브 '시동' - 고려대학교



글

• 송보배

한국대학신문 기자

'개혁하는 지성' 위한 고려대의 실험, 살펴보니

21세기가 원하는 고등교육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할까.

최근 고려대의 실험적인 행보는 이러한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

다. 고려대는 최근 2018년도부터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정시모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대학가 일대 화제가 됐다.

지난 10월에는 교내장학금에서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계 곤란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개편하는 혁신적인 장학제도 개편안



을 발표했다. 출석부, 시험감독, 상대평가를 없애는 3무(無) 정책의 일환으로 올 2학기부터 무감독 시험을 본격 시행기도 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염재호 총장은 '개혁하는 지성'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학이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왔다. 고려대의 입학제도 개편과 3무(無) 정책은 이러한 염 총장의 정책기조에 맞춘 대학의 실험인 셈이다.

이런 일련의 개혁들은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기존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학의 사회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출석부 · 시험감독 · 상대평가 없는 '3무(無) 정책'

'개혁하는 지성' 기조 아래, 고려대는 올해부터 출석부, 시험감독, 상대평가를 없애는 '3무(無)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 1학기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안을 확정했고, 1학기과 여름학기에는 무감독 시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어 2학기부터 무감독 시험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염재호 총장은 "대학에서 초중고에서처럼 학생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의 시험감독, 출석부, 상대평가를 반드시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이 지성의 전당인 바,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보다 신뢰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무감독 시험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등에서 '아니코드(Honor Code)'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동대, 광운대가 도입하고 있다.

출석확인 자율화(무출석부) 역시 200여 개 강좌에서 도입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출석확인 자율화는 수동적인 출석문화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좋은 강의환경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폐지도 희망하는 학과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돈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학생 없도록 한다" 필요기반(Need Based) 장학제도 개편

고려대는 지난 10월 교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필요기반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장학금의 본의를 살린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려대의 2016학년도 장학금 배정은 △자유장학금(자치·자율 기반) 35억 원 △정의장학금(필요기반, Need-based) 200억 원 △진리장학금(프로그램 기반, Program-based) 100억 원으로 개편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의장학금은 가계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0~2분위 학생 등록금 10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생활비 지급(교내 근로 연계) 등의 혜택이 지원되며, 3분위 이상 학생은 장학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염재호 총장은 "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 잇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필요기반(Need Based)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등은 가계 소득이 65,000달러 미만일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격려 의미로 전달하는 메리트 베이스(Merit Based)의 성적장학금과 필요기반의 장학금을 함께 지급해 왔다. 고려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재정적 보상 대신 학교에서 그 명예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 입학제도 개편

최근 고려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입학제도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2018학년도부터 고교추천전형을 정원의 50%까지 확대하며, 기존 정시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축소하고 논술전형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남호 교육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학이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변화 중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이 큰 영역이 입학인데, 어떻게 하면 사회기여라는 큰 숙제를 풀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학제도를 만들지 많은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원의 27.4%를 차지하는 논술전형을 폐지하는 이유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취지라고 설명했다. 논술전형은 그간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고교과정 외에 별도의 사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김재욱 입학처장은 “논술전형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고교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대학에 올 수 있는 기회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수능을 잘 보고 논술 잘 본 것이 아니라 고교 학습에서 어떤 능력을 갖춰 왔는지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존 일반고교만 가능했던 학교장추천전형은 2018학년도부터 특목고를 포함한 고교추천전형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려대는 고교추천전형의 확대 도입은 고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고려대의 이 같은 개혁시도들은 올해 대학가에서 신선한 파동을 일으켰다.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지만 경쟁보다는 기회균등에 무게중심을 옮긴 시도들이 대학과 교육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긍정론도 상당하다. 고려대의 잇단 개혁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고려대의 혁신행보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글

•
향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I. 들어가며

우리나라 특수교육¹⁾의 역사는 독립운동가 이영식이 1946년 설립한 대구 맹아학교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49년 말에는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된 교육법이 제정되고, 1961년에는 특수교육

발전의 초석이 되는 특수교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었다. 1962년 농·맹아 특수학급의 설치규정 제정, 한국 특수교육학회의 발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호).

족, 1967년의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이 1960년대의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에 힘입어 1970년에 발표된 「장기종합교육계획」의 내용에 특수교육분야가 포함되었으며,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결실을 이루었다. 그 후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의 내용에 '통합교육'의 내용이 삽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05, 김남순).

특수교육 대상^{2), 3)}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육방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특수교육기관⁴⁾에 따라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분리교육, 특수학급의 부분통합 교육 및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통합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박은송, 2015).

최근 특수교육의 전 세계적인 추세는 분리교육보다는 일반 아이들과 일반학급에서 교육하는 통합교육을 추구하여 장애아와 정상아 사이의 경계를 가지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도록 하면서 각자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개별화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박은송, 2015; 김남순, 2005; 김형일, 2015).

여기서는 관련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표 1]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5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88,607명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가장 많이 배치된 교육기관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46,351명)으로 전체 중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학생은 15,622명(17.8%)으로 이 두 가지 형

[표 1] 2015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수	25,531 (29.0)	46,351 (52.6)	15,622 (17.8)	563 (0.6)	88,067 (100)	
학생 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291	435	9	2,088
		청각장애	952	1,752	22	3,491
		정신지체	14,891	4,001	80	47,716
		지체장애	3,707	3,010	171	11,134
		정서행동장애	199	707	-	2,530
		자폐성장애	4,000	675	7	10,045
		의사소통장애	85	961	2	2,045
		학습장애	13	866	-	2,770
		건강장애	48	1,649	-	1,935
	발달지체	283	1,566	272	4,313	
	계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교 과정별	장애영아	179	-	563	742
		유치원	883	1,822	-	4,744
초등학교		6,472	6,128	-	33,591	
중학교		6,142	3,654	-	21,108	
고등학교		7,581	4,018	-	23,422	
전공과		4,274	186	-	4,460	
계	25,531	46,351	15,622	563	88,067	
학교 및 센터 수	167	7,397	6,972	196	10,908	
		10,528				
학급 수	4,454	9,868	(14,580)	61	28,963	
특수학교(급)교원 수	7,863	10,185	-	291	18,339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3,386	6,483	471	-	10,340	

* 기준일: 2015년 4월 1일

*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는 전체 대비 비율을 나타냄

* 학급 수의 ()는 전일제 통합학급을 나타냄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2)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3)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1호).
- 4) '특수교육기관'이라함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호). 이 밖에도 가정, 특수보육시설, 병원, 일반학교에서 순회교육의 형태로도 특수교육이 제공되고 있음(이승희·최금진, 2006).

태를 합하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특수학생은 전체 학생 중 70.4%(61,973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수학교의 학생은 25,531명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 주로 통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생은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015, 교육부). 장애영역별로는 정신지체가 47,71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체장애(11,134명)와 자폐성장애(10,045명)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과정별로는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아동이 33,5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23,422명), 중학교(21,108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2]는 2015년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으로, 설립별 학교 수와 해당과정을 설치한 학교 수를 보여주고 있다. 시·도별 특수학교 설치현황을 보면, 2015년 4월 1일 현재 경기도가 32개교, 서울이 29개교로 주로 경기와 서울 지역에 특수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산(15개교)과 전북(11개교) 지역이 그 뒤를 이었고, 세종시에는 아직 1개교도 개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과정별로는 유치원 과정을 설치한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영아 학급의 경우, 대구,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를 지닌 대상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대상자에 대

한 과정 설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 2015년 시·도별 특수학교 및 과정별 현황

(단위: 개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영아 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전체	5	70	92	167	23	118	155	158	155	127
서울	3	7	19	29	7	20	26	26	26	22
부산	-	8	7	15	7	9	12	13	11	9
대구	-	3	6	9	-	4	9	9	9	9
인천	-	3	4	7	1	6	7	7	7	6
광주	-	3	2	5	1	2	5	5	5	3
대전	-	3	2	5	1	5	5	5	5	5
울산	-	2	2	4	1	3	4	4	4	4
세종	-	-	-	-	-	-	-	-	-	-
경기	2	9	21	32	1	27	27	29	28	22
강원	-	5	2	7	-	7	7	7	7	6
충북	-	2	7	9	2	9	9	9	9	7
충남	-	4	2	6	1	3	6	6	6	5
전북	-	6	5	11	1	4	10	10	10	5
전남	-	3	5	8	-	6	8	8	8	5
경북	-	3	5	8	-	4	8	8	8	8
경남	-	7	2	9	-	6	9	9	9	8
제주	-	2	1	3	-	3	3	3	3	3

* 기준일: 2015년 4월 1일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다음의 [표 3]과 [그림 1]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특수학교 수와 배치 학생 수, [표 4]와 [그림 2]는 특수학급 수와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수학교의 경우 1962년 10개교에서 2015년 4월 현재 167개교로 약 16.7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약 2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약 243명이 증가하였다.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 1개였던 특수학급이 현재 9,868개로 증가하였으며, 특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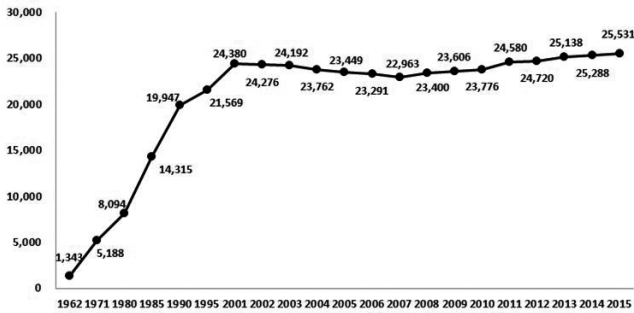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개교, 명)

연도	1962	1972	1982	1992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0	38	65	103	142	150	155	156	162	166	167

* 기준일: 2015년 4월 1일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그림 1]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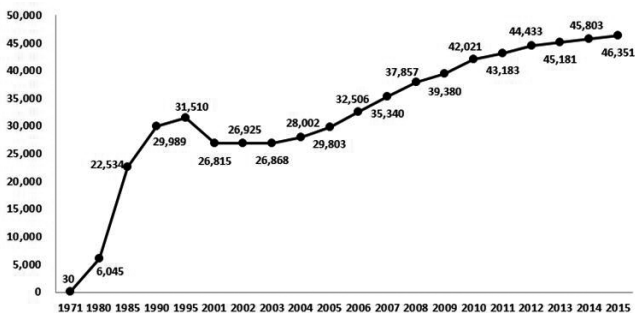
[표 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개)

연도	1971	1980	1990	2000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학급수	10	38	65	103	142	150	155	156	162	166	167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그림 2]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출처: 2015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급 학생 수도 1971년 30명에서 1980년 6,04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29,989명에 이르렀다. 2001년에 26,815명으로 다소 감소했던 특수학급 학생 수는 10년 사이에 42,021명으로 급증하여 특수학교 학생 수의 약 1.8배에 이르렀다. 2015년 현재 특수학교 학생 수는 25,531명이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46,351명이다.

Ⅲ. 나오며

이상으로 특수교육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기회는 통계자료가 가용한 1960년대 이후 관련정책들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 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경계를 갖지 않고 교육을 받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영유아시기의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수혜율과 수혜 받은 교육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수집된다면 보다 정확한 현황과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http://www.law.go.kr>(2015. 11. 27 검색).
- 교육부(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통계.
- 김남순(2005).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정책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3), 255~277.
- 김형일(2015).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양상 및 과제. 특수교육 교과교육연구, 8(2), 47~67.
- 박은송(2015). 국내 특수교육분야에서의 개별화교육 연구동향과 과제. 특수교육 교과교육연구, 8(1), 69~92.
- 이승희·최금진(2003). 특수교육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 교육행정학연구, 24(2), 323~348.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 개최



10월 22일(목) 오후 1시 나인트리 컨벤션 3층 테라스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우리 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이 '위기와 기회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통한 활로 찾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교육·경제·지방행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지방교육재정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럼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네 차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회룡 교수(공주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교육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충북 속리산중학교 등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와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응한 학교 신설 및 재배치 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이광현 교수(부산교대)는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방식 개선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부금 교부방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교부방식의 변화가 시·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임성일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지방교육재정의 예산과정 연계, 중기재정계획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와의 협력, 재정공개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투자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을 과거 BTL 방식의 학교신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수결손, 무상복지비 및 비정규직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세계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



11월 18일(수)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정부 및 국제기구의 세계시민교육 관계자, 국내 교육계 연구자 및 전문가, 대학교수, 교사, 언론인,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를 위한 교사의 준비: 세계시민교육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87차 KEDI 교육정책포럼과 연계하여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캐린 파쉬비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연구원이 '다문화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국내·국제적 관점에서의 캐나다 사례'라는 제목으로,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박영 연세대학교 강사가 '한국 학교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실태와 실천과제'에 대해, 모니카 크루즈만 영국 싱크 글로벌 본부장이 '도전과 변화: 영국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에노 나카무라 일본 개발교육협회 사무총장이 '일본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도전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류성창 국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수, 차보은 옥수초등학교 교사,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최춘옥 신수중학교 교장 등이 참가하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9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11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원과 함께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등이 공동으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관련 학회 관계자, 정부 및 교육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학술대회는 최근 9년간의 ‘한국교육종단연구’와 11년간의 ‘학교교육의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그리고 4년간의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 자료를 활용해 교육분야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 제공한 ‘한국교육종단연구’는 동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습경험, 그리고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수준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조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개년 동안 수집된 한국교육종단연구와 2003년부터 11개년 간 수집된 1~4주기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11년~2014년의 대학의 교수·학습 활동과 학습성과 데이터를 활용해 대학 교수-학습 활동, 대학 학습성과, 대학진로/취업,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의 성장모형, 학생의 인성,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습동기, 가족관계 및 부모지원, 대학생활, 국가장학금 및 사교육, 학교풍토 등 12개 주제에 관해 모두 5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근 교육분야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 되었다.

2015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 개최



12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The K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우리 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한 ‘2015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가 개최되었다. 발표회에는 자유학기제 운영(예정) 학교 교원,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총 1,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교의 교원이 다수 참석해 지난 3년간 시범 운영의 성과를 한 곳에서 관람함으로써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1부 성과발표/시상식과 2부 주제별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의 성과 및 내년 전면시행을 위한 계획과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2부에서는 자유학기제의 핵심 분야인 △교실수업 개선 △자유학기 활동 △공공/민간의 자유학기 지원활동 세션별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사례 발표, 토의가 진행됐다. 교실수업 개선 세션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 Talk와 더불어 교사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고, 자유학기 활동 세션에서는 진로체험 실천,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 동아리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학기제 지원 활동 세션에서는 현장 지원단 우수사례와 대학생/시니어 봉사단의 지원사례,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우수사례 등이 공유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자유학기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 체험처 7만 9,000개와 체험프로그램 16만3,000개를 확보했으며, 1개교당 2,000만 원 내외의 운영예산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 유망 직업 및 인기 직업 미래 고용 전망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개발>에 바라는 점은 현장체험학습의 꽃으로서 국토탐방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내용을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용주(강원 삼척)

정책과 현장의 SW교육의 방향과 전망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침투한 컴퓨팅 생활의 보편화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너무 관련과정의 진행이 빨리 되는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은혜(경기 강화)

현장르포 섹션은 교사들의 연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이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더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교원들에 대한 인터뷰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닿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범준(충북 제천)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 보건교육에 대해 세계의 사례를 알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건과 교육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협업에 의한 업무처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면에 공감합니다. 각각의 전문성이 합쳐져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에 대한 바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지혜(제주 서귀포)

말이 많았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앞으로 계속 시행될 2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유나리(경기 안산)

'우리나라 및 세계의 교육 정책과 그 특성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중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에 대한 특별기획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추진, 자유학기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의 일련의 교육개혁 정책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민(서울 서초)

항상 각 학교별 교육방향 등에 대해 서술이 되어 있어 현장르포를 즐겨 읽습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글이 더 많이 실리면 좋겠습니다. 현장르포를 제외하고는 초·중등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사례나 영재교육, 융합교육 등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지현(전북 전주)

파워인터뷰와 특별기획을 가장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잘 보았습니다. 전문대학이라 하면 과거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특별기획의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한 글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지숙(경기 용인)

외국의 교원평가 사례와 시사점은 실제 한국의 교원평가에 화두를 던지는 점이 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10년도 채 되지 않은 교원평가이지만,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타당성을 덧붙여서 공정한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근태(충남 태안)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e-mail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기간
2015. 1. 3 ~ 2015. 12. 31

서울서초우체국
승인 제 10113-41270호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voie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담당자 앞

0 6 7 6 2

- 「교육개발」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 보내주시는 의견은 「교육개발」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교육개발」을 읽고… 「교육개발」에 바란다!

이번 호에 가장 재밌고 유익했던 기사나 「교육개발」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교육개발」을 읽고 퀴즈에 정답을 맞춰 주세요.

- Q1.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해 2016년 가 전면 시행된다.
- Q2. 선행학습과 대학입시 등 사교육이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 년차를 맞이하였다.
- Q3. 한국교육개발원 은 국내 교육개발협력의 외연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를 견인하고 교육개발협력 신흥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시거나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채택·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국문)
<http://kedi.re.kr>



KEDI 홈페이지(영문)
<http://eng.kedi.re.kr>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https://hiedupport.kedi.re.kr>



교육과교실연구·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교육정책연구평가센터
<https://necpe.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교육트렌드서비스
<http://kess.kedi.re.kr>



기관평가연구소
<http://ceic.kedi.re.kr>



대학평가본부
<http://uce.kedi.re.kr>



방과후학교
<https://www.afterschool.go.kr>



자유학기제운영센터 포털시스템
<http://openschool.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인터넷 통일학교
<http://tongil.mest.go.kr>



자유학기제운영센터 정보시스템
<https://freesem.moe.go.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s://www.hub4u.or.kr/hub/main.do>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http://stopbullying.kedi.re.kr>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schoolhealth.kr>



한국교육중단연구
<http://kels.kedi.re.kr>



AskKEDI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Wee 프로젝트
<http://www.wee.go.kr>



「교육개발」, 「한국교육」 웹진
<http://edzine.kedi.re.kr>

2015년, 교육을 통해 희망을 키우고 꿈을 일구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교육',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지닌 품격 있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한국교육개발원이 '희망의 새 시대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바른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효능감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해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국가와 세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저마다 꿈과 끼를 키우고,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초·중등교육의 창의·인성 교육, 미래사회 역량교육, 세계화 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